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54호 【루계 제24667호】 주체103(2014)년 9월 11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안고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전투를 힘있게 벌리자

가을걷이철이 왔다.

당의 호소를 받들고 온 나라가 사회주의농촌테제발표 5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의 알곡생산목표점령을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려 맞이한 가을걷이계절이다. 백년왕가물을 이겨낸 사회주의협동벌에서 구수한 낟알향기 풍기고있는 곡식이 우리를 기다리고있다.

지금이야말로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안고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전투에 떨쳐나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려야 할 때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야 합니다.》

올해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할 결사의 각오로 심장을 불태우며 힘찬 투쟁을 벌려왔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통찰력으로 우리 농업의 현 실태와 발전전망을 꿰뚫어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를 마련해주시고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시였으며 농업전선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 제1제대 제1선참호로 내세워온 나라 협동벌이 알곡증산투쟁으로 세차게 끓어번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한마음을 안고 분발해나선 우리의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은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논밭을 걸구었으며 수확고가 높은 품종들로 단지모, 이른 큰모를 비롯한 앞선 모기르기방법을 널리 도입하고 모내기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끝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소식재배, 겹재배 등 우월한 재배방법과 기술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여 례년에 없는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농사를 안전하게 지었다.

오늘 백년왕가물을 이겨내며 곡식이 알차게 익어가고있는 전야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민은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한마음한뜻으로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불타는 충정과 애국의 열정은 하늘을 이긴다는 철리를 다시금 새겨안고있다.

지금 농업부문앞에는 2백 수십일간을 하루와 같이 살며 투쟁하여 이룩해놓은 귀중한 열매를 나라의 쌀독에 가득 채워넣어야 할 영예롭고도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일찌기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곡식을 논밭에서 제때에 실어들여 털지 못하여 많은 알곡을 잃어버리고있다고 가슴아파하시면서 그 극복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살며 투쟁하는 오늘의 벅찬 시대에 이런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로 각성을 높여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하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후손,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고 도리이다.

올해농사의 마지막영농전투인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잘하는것은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다. 식량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 인민들의 식탁에서부터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울려나오도록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드팀없는 의지이며 확고한 결심이다.

애국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 가꿔온 곡식을 한알도 허실없이 나라의 쌀독에 채워넣는가 못 채워넣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우리모두가 가을철의 순간순간을 어떻게 맞고보내는가에 달려있다.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는 올해농사의 마지막돌격전이다.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지니자면 애써 지은 낟알을 알심있게 거두어들여야 한다.

올해 우리의 투쟁은 인민의 아름다운 리상과 꿈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빛나게 장식할 대축전장과 잇닿아있는 승리자의 진군이다.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최후돌격전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해제껴야 한다.

적기보장은 주체농법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올해에 왕가물이 지속되면서 농작물의 생육이 떠진 조건에서 가을걷이적기를 옳바로 정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벼, 강냉이 등 곡식들의 여물기과정에 대한 조사를 잘하여 수확적기를 정확히 선정하고 일정계획을 바로세워 이삭이 여무는족족 가을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변덕스러운 자연기후현상으로 언제 우박과 서리가 내릴지 예측할수 없는 조건에서 가을걷이를 적기에 와닥닥 해제끼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은 더욱 크다.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동시에 내밀어야 한다. 가을한 곡식을 제때에 털지 못하고 한동안 쌓아두면 숨쉬기에 의한 영양물질소비로 천알무게가 줄어들고 들짐승피해까지 입어 정보당 1t까지의 소출이 감소된다는것은 안악군 오국,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을 비롯하여 해마다 알곡생산계획을 수행하고있는 단위들에서 이미전에 찾은 교훈이다. 예상수확고가 그대로 실수확고로 되게 하자면 실정에 맞는 각종 이동식 및 소형탈곡기들을 대대적으로 생산리용하여 이삭이 익는족족 가을과 낟알털기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가을걷이를 질적으로 하는데 알곡증산의 중요한 예비가 있다. 최근년간 산골농사에서 장훈을 부르고있는 대관군의 경험은 강냉이밭 한평에서 한이삭이 허실될 때 정보당 450kg정도의 낟알을 잃게 되므로 그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이 알곡증수의 큰 예비로 된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가을과 운반, 낟알털기의 모든 공정들에서 농기계들을 적극 동원리용하는것과 함께 누구나 주인답고 깐진 일본새를 발휘하여 낟알허실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농업부문 일군들이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분발해나서야 한다. 도, 시, 군, 농장일군들은 자기들의 역할에 따라 올해농사가 성과적으로 결속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이 결정된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빈틈없이 작전하며 완강하게 실천해나가야 한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갈 때 기적이 창조된다. 농장일군들은 우를 쳐다보며 도움을 바랄것이 아니라 자기 단위의 농사결속을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피타게 사색하면서 뛰고 또 뛰여야 한다. 모내기때처럼 밤잠을 잊고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작전을 전투적으로 하고 대중의 앞장에서 혁신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한다. 전력, 연유, 농기계들을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 적은 투자로 큰 실리를 얻게 하여야 한다.

농업부문 분조장들에 대한 우리 당의 기대와 믿음은 참으로 크다. 분조장들은 당에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를 마련해준 깊은 뜻을 언제나 잊지 말고 농촌의 선구자, 기수가 되여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전투에서도 한몫 단단히 하여야 한다. 분조관리제의 요구대로 매일 로력조직과 총화평가사업을 정확히 하고 분조의 맏형, 맏누이가 되여 분조원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보아줌으로써 그들의 주인된 자각과 생산열의를 더욱 높여주어야 한다.

우리 당은 농업근로자들에게 나라의 쌀독을 맡겨주었다. 한포기의 곡식을 베여들이고 한줌의 낟알을 털어내도 알뜰하고 깐지게 하는 사람이 우리 당이 바라는 참다운 애국농민이다. 농업근로자들은 애국의 뜨거운 마음을 안고 모든 가능성을 동원하여 자기가 맡은 포전의 낟알을 한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여야 한다.

남들이 실적을 올린다고 하여 조급성을 앞세우면서 채 익지 않은 낟알을 베여들이거나 말끔히 털지 못하는 현상을 없애야 한다. 농기계운전수, 운전공들은 자기들의 두손에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성과의 열쇠가 쥐여져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기대수리정비를 깐지게 하여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여야 한다.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다. 도, 시, 군당위원회일군들은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집중시켜 협동벌이 결사관철의 정신과 애국의 열정으로 부글부글 끓게 하여야 한다. 당이 부르는 전투장마다에서 조선속도창조열풍을 세차게 일으켜가는 인민군 군인들처럼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전투를 전격적으로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내밀도록 사상사업을 립체적으로, 공세적으로 벌려야 한다. 실적을 따지기 전에 먼저 농업근로자들의 집집을 찾아 밥가마뚜껑부터 열어보면서 뜨거운 정을 쏟고 이른새벽 첫 이랑을 타며 이신작칙하여야 한다. 농촌당일군들은 관리일군, 작업반초급일군들이 신심을 가지고 전투를 결패있게 지휘하도록 이끌어주며 후방사업에 힘을 넣어 농장원들의 열의와 기세를 더욱 돋구어주어야 한다.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사회주의경쟁을 실속있게 조직하고 단계별총화평가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여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

한해농사는 량곡수매를 깨끗이 끝내는 사업으로 결속된다. 수매량정성과 해당 단위들, 농촌들에서는 량곡수매와 운반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고 보관관리를 잘하여 귀중한 낟알이 허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온 나라가 가을걷이전투를 힘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적인 보장대책을 앞세워야 한다. 지금 들끓는 협동벌에 절실히 필요되는것은 전력이다. 농기계와 부속품을 생산하고 수리를 하자고 해도 전력이 보장되여야 한다. 전력공업부문의 일군들은 나라의 긴장한 전력사정에 맞게 전력보장대책을 합리적으로 세워 다 지어놓은 곡식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동식탈곡기와 각종 농기계부속품생산을 맡은 단위들에서 생산을 힘있게 다그쳐 농촌에 속히 보내주어야 한다. 해당 단위들에서는 계획된 연유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빠른 시일안에 무조건 보장해주어야 한다. 밥술을 뜨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라의 쌀독을 함께 책임졌다는 관점을 가지고 떨쳐나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전투를 진심으로 도와야 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협동벌에서 뜻깊은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는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고있다.

모두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야 집집에 웃음꽃 피여나고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이 활기에 넘쳐 전진하게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전투에서 혁신을 이룩함으로써 농업전선에서 승리의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

조선속도창조의 불길 온 나라에 타번진다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돌파구를 열며 계속 혁신

618건설돌격대 고산과수농장 능력확장공사에서 한달동안에 계획된 각종 건재생산과 대상건설 및 보수과제 100% 수행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고산과수농장 능력확장공사를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해주신 날자에 무조건 완공할데 대하여 주신 현지말씀을 결사관철할 불같은 마음을 안고 분발해나선 618건설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완강한 돌격전을 벌리며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이들은 한달동안에 10km의 쇠그물울타리와 3만대의 콩크리트지지대, 50t의 환강생산, 1만 8천여㎥의 과일보관고부지정리, 도로포장을 위한 20여리구간의 흔석다짐, 50여동의 살림집, 공공건물건설 및 보수계획을 100% 수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지난 7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몸소 고산과수농장을 찾으시고 618건설돌격대 일군들과 건설자들, 과수농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농장을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표준농장으로, 세상에 자랑할만한 과수농장으로 전변시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당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며 현지말씀관철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쳐나갔다.

현장지휘부에서는 공사대상별, 단계별전투목표를 바로세우고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맡겨진 과제를 제기일내에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정치일군들이 현장에 나가 당의 구상을 실현하는 길에 자기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진리를 실천으로 보여주자고 하면서 돌격대원들을 불러일으키였다.

건재생산기지들에서 만가동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였다.

쇠그물울타리공장 일군들과 생산자들이 최첨단돌파정신으로 우리 조국의 모든것을 세계에 없는 사회주의재부로 만들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섰다. 이들은 집체적지혜를 합쳐가며 설비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고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쇠그물울타리생산량을 1.3배로 늘이였다.

량강도광업련합기업소련대에서 콩크리트지지대생산을 힘있게 내밀었다. 일군들은 돌격대원들속에 들어가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면서 기술자, 기능공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어 생산물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갔다. 돌격대원들은 자나깨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행군길에 자기들의 충정의 마음, 투쟁의 발걸음을 따라세우기 위해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생산을 힘있게 다그쳤다. 결과 계획된 3만대의 콩크리트지지대생산을 앞당겨 끝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로 세계를 앞서나갈 자신만만한 배심을 가지고 떨쳐나선 평양시려단 강동군대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환강생산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은 수백t의 파철을 앞질러 확보해놓고 생산을 힘있게 내밀어 환강생산계획을 수행하였다.

과일보관고건설이 통이 크게 벌어졌다.

현장지휘부에서는 넓은 면적의 부지정리를 단숨에 끝낼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패기있게 해나갔다. 일군들은 려단별로 전투과제를 정확히 주고 압축기들을 총집중하여 착암실적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세워나갔다.

애로가 막아서고 힘겨울 때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들의 투쟁을 지켜보신다는 자각으로 분발하고 또 분발해나선 평안남도, 함경남도, 황해북도려단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은 착암공들의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키며 발파효률을 높여나가도록 그들을 적극 내세워주었다. 이에 고무된 돌격대원들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완강한 돌격전을 벌려 한사람이 하루 최고 200개의 발파구멍을 뚫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이런 드센 공격전으로 그들은 4 500㎥의 암반을 까내고 1만 8천여㎥의 토량을 처리하여 부지정리전투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도로포장을 위한 흔석다짐전투장에서도 결사관철의 정신이 세차게 나래쳤다.

당이 준 과업을 집행하기 전에는 물러설 자리가 없다는 각오를 새겨안은 함경북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들은 륜전기재를 리용하여 흔석운반과 다짐을 동시에 내밀수 있는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불리한 작업조건에서도 1000여m의 구간에 2000여㎥의 흙쌓기와 흔석다짐을 나흘동안에 끝내여 우승의 영예를 지니였다. 황해남도려단에서는 도일군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10여대의 륜전기재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흔석운반에서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맡겨진 전투과제를 닷새동안에 끝냈다.

살림집과 공공건물건설 및 보수전투도 힘있게 벌어졌다.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에서 선구자, 개척자의 슬기와 용맹을 떨칠 신심드높이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모두가 분발하여 25동의 살림집과 5동의 공공건물을 완공하였으며 20동에 36세대의 살림집 보수공사도 진행하였다.

전력공업성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전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공사에 력량을 집중하여 실적을 높이였다.

본사기자 정영철

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세멘트를 보내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원양선단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동해의 각지 수산사업소일군들과 어로공들이 적극적인 원양어업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고있다. 특히 지난 8월 19일 하루에 백수십t의 물고기를 잡아 최근년간의 가장 높은 생산실적이 기록되였다. 지난해보다 한달정도 앞당겨 먼바다로 진출한 원양선단은 지금까지 수천t의 물고기를 잡는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원양선단은 수십척의 성능이 좋고 현대적인 어구를 갖춘 고기배들과 가공모선들로 무어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부문에서는 최고사령관명령을 결사관철하여 물고기대풍을 마련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고기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고 과학적방법으로 물고기잡이전투를 힘있게 벌려 포구마다에 만선의 배고동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며 바다가양식도 대대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가까운바다뿐아니라 먼바다에서도 적극적인 어로작업을 진행할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수산성에서는 원양어업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 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금속공업부문의 뜨거운 지원속에 배수리에 필요한 자재보장이 선행되고 어구와 연유확보를 위한 성적인 작전이 전개되였다.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아래 각지 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올해에 물고기대풍을 안아올 불같은 열의에 넘쳐 짧은 기간에 모든 고기배들의 원양어업준비를 끝냈다. 특징적인것은 여러척의 가공모선들에 물고기를 제때에 가공처리할수 있는 초급동설비가 새로 장비되고 어로공들이 먼바다에서 불편없이 어로활동을 벌릴수 있는 물질문화생활조건이 보다 원만히 갖추어진것이다.

만단의 준비밑에 6월말과 8월초경 두차례에 걸쳐 지난 시기보다 규모가 큰 원양선단이 조국땅과 멀리 떨어진 먼바다어장으로 떠났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함성이 풍랑사나운 먼바다에서 우렁차게 메아리치고있다.

원양선단의 지휘선들에는 과학적인 물고기잡이방법과 원양어업경험이 풍부한 수산성과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이 타고있다. 그들은 편대들사이를 종횡무진하고 어로공들과 함께 일하면서 어로전투를 능숙하게 지휘하고있다.

각지 수산사업소의 어로공들은 먼바다의 중심어장을 타고앉아 날바다와 싸우며 대담한 어로전으로 물고기잡이성과를 확대하고있다. 그들은 지난해보다 1.2배나 높은 물고기잡이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해 집중과 분산적인 어로방법을 받아들이고 웬만한 바다날씨에도 아랑곳없이 기망당 어획고를 높이고있다.

가공모선들의 어로공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물고기가공전투를 벌리며 잡는족족 물고기들을 처리하고있다.

지금 조국땅과 멀리 떨어진 먼바다어장에서 매일 높은 물고기잡이실적이 기록되고있다는 혁신의 소식은 전파를 타고 계속 날아들고있다. 어떤 날에는 지난해보다 2배의 높은 생산실적이 기록되고 사나운 풍랑과 싸우며 결사적인 전투를 벌려 계획보다 수십t이나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흐뭇한 소식들이 전해졌다.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차넘치게 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피끓는 가슴마다에 새겨안은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앞으로 남은 기간에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해 내세운 물고기잡이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불같은 열의에 넘쳐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한길로 줄달음치고있다.

본사기자 전성삼

새형의 벼탈곡기 생산

청진련결농기계공장에서

청진련결농기계공장에서 성능높은 계획된 새형의 소형이동식벼탈곡기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무게가 100여kg인 소형이동식벼탈곡기는 부피가 작고 구조가 간단할뿐아니라 사용하기 편리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뜨락또르와 함께 모뜨는기계, 모내는기계, 벼베는기계와 낟알터는기계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능률높은 중소농기계들과 련결농기계들도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이 공장은 지난 시기 자체의 힘으로 많은 농기계들을 생산하여 도의 알곡증산에 크게 기여한 단위이다.

공장에서는 여러 종류의 농기구와 농기계를 생산하여 도의 협동농장들은 물론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 보내줌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공장에서는 지난 시기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현실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소형이동식벼탈곡기를 생산하여 가을걷이전으로 도의 협동농장들에 보내줄 높은 목표를 내걸었다.

공장당조직에서는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폭발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는 한편 공장안에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공장의 기술자들은 3대혁명소조원들과 지혜를 합쳐 채구멍따기지구와 베아링집가공지구를 비롯한 여러가지 지구들을 창안도입하여 생산성과를 더욱 높일수 있게 하였다.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탈곡기의 첫 시제품을 성과적으로 만들어낸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금 벼탈곡기를 대량생산하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생산의 마지막공정을 맡은 작업반원들은 프레스들의 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고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기풍을 높이 발휘하면서 설비와 부속품조립을 다그쳐가고있다.

주물작업반원들은 농기계생산의 첫 공정을 맡아나섰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유도로의 정상가동을 보장하면서 각종 주물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제관, 가공, 공무작업반에서는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여러가지 제관품과 가공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고있다.

중앙과 도의 일군들이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도와주고있다.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자기들앞에 맡겨진 소형이동식벼탈곡기생산을 짧은 기간에 끝낼 열의를 안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각하

경의를 드립니다.

나는 귀 공화국창건일에 즈음하여 팔레스티나국가 인민과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와 그리고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와 충심으로 되는 축원을 드리게 됨을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친선적인 귀국에 안정과 번영이 있을것을 바랍니다.

우리는 각하께서 자유와 독립을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의 전기간 련대성을 표시해주시고 모든 국제무대들에서 우리를 지지해주시는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력사적인 친선관계와 호상존중의 뉴대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 관계가 공동의 리익에 맞게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면서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마흐무드 아빠스
2014년 9월 9일 라말라흐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에 즈음하여 각하께 축하를 드리며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진보와 번영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뽀르뚜갈공화국 대통령
아니발 까바꾸 씰바
2014년 8월 18일 리스봉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에티오피아련방민주공화국 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와 각하를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게 됨을 커다란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각하께서 언제나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평화와 번영이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에티오피아련방민주공화국 대통령
박사 물라투 테쇼메
2014년 8월 22일 아디스 아바바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각하

각하

나는 경사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절을 맞으며 각하께 열렬한 축하를 드리게 됨을 특전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호상협조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대통령
맘눈 후쎄인
2014년 8월 26일 이슬라마바드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와 그리고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은 나라의 자주권수호와 경제적발전, 조선반도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주체철학을 철저히 구현하여왔습니다.

우리 두 나라는 근 40년간 정치적 및 경제적관계를 강화하고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였으며 국제무대들에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여왔습니다.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을 맞이하는 이 뜻깊은 계기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경제적협조와 협력관계가 보다 더 강화되고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것을 희망합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각하께 다시한번 열렬한 축하를 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두 나라사이의 잘되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
무력총사령관
굳락크 에벨레 죠나탄
2014년 9월 2일 아부쟈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에 즈음하여 인디아정부와 인민을 대표하여 각하께와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따뜻한 인사와 축하를 보냅니다.

인디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친선과 협조에 기초한 오랜 관계를 가지고있습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긴밀한 관계가 두 나라 인민의 호상리익에 맞게 목적있게 전진하리라는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친선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진보와 번영이 있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인디아공화국 대통령
프라나브 무케르지
2014년 9월 4일 뉴델리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동지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로씨야련방공산당의 이름으로 당신께와 그리고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아시아에서 새로운 체계의 수립을 촉진시킨 중요한 력사적사변이였습니다.

창건후 오늘까지 귀국은 조선반도와 아시아전반의 공고하고 안정적인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로선을 시종일관하게 실시하여 오고있습니다.

오늘날 전세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생활의 각이한 분야들에서 이룩한 커다란 성과들을 인정하고있습니다.

귀국의 벗들인 저희들은 조선인민이 정의로운 사회주의사회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합니다.

경의를 드립니다.

로씨야련방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게. 아. 쥬가노브
2014년 9월 5일 모스크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총련조직과 단체들에서 축전들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총련조직과 단체들에서 축전들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재일본조선상공련합회 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중앙상임간사회,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인교육회 중앙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 중앙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중앙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인체육련합회 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인의학협회 중앙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재일본조선인권협회 중앙상임리사회를 비롯한 총련의 중앙단체들과 산하조직들, 조선신보사, 조선통신사, 학우서방, 금강산가극단, 동해상사주식회사,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 금강보험주식회사, 조일경제교류촉진회, 재일조선합영경제교류협회, 동포결혼상담중앙쎈터, 조선출판회관, 중외려행사 등 사업체들 그리고 총련의 각 지방본부들, 조선대학교와 각급 재일조선학교들에서 축전들을 드리였다.

축전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의 만년초석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자주의 기치, 선군의 기치로 백두산대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지적하였다.

공화국의 창건은 반만년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인민이 주인이 된 자주적인 정권의 탄생을 선포한 민족사적경사이라고 밝혔다.

나라없는 식민지망국노의 설음으로 신음하던 재일동포들을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백두산강국의 해외공민으로서 긍지높고 보람찬 삶을 누리도록 하여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은덕을 세월이 가도 잊을수 없다고 피력하였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탁월한 선군령도로 내외분렬주의세력의 거듭되는 반공화국대결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온 민족을 자주통일위업실현에로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시는데 대해 격찬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히 력사적인 축하문을 보내주시고 총정의 대회, 일심단결의 대회, 계승과 혁신의 대회로 빛내여주신 총련 제23차 전체대회를 통하여 재일동포들은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을 더욱 깊이 절감하였다고 밝혔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 총련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감으로써 주체의 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 사회주의조국과 운명을 함께 하는 열렬한 애족애국의 선각자로서의 영예를 더욱 빛내여나갈 결의에 충만되여있다고 강조하였다.

축전들은 조국의 륭성번영과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해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김일성조국이며 우리 민족은 김일성민족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언에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민족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존함과만 결부시켜 부를수 있는 수령님의 나라, 수령님의 민족이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곧 수령의 위대성이며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는 위대한 수령을 모실 때 빛나게 된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면서도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고 자기를 지킬 힘이 없었던탓으로 사대와 망국을 숙명처럼 감수해야만 하였던 비참한 식민지약소민족이 바로 한세기전의 우리 민족이였다. 그러던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심으로써 자주적인 인민, 창조적생활로 긍지높은 행복한 인민으로 존엄떨칠수 있게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세기를 이어 누려가는 보람차고 행복한 사회주의생활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살며 투쟁해왔는가를 가슴뜨겁게 절감하고있다. 백두산 줄기줄기 압록강 굽이굽이에 피어린 자욱을 새기시며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전쟁의 포화속을 헤치시며 미제를 타승하고 우리 조국을 지켜주신분이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이 세기를 두고 바라온 모든 리상과 념원을 꽃피워주는 가장 우월하고 생활력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였고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공장과 농촌을 쉬임없이 찾으시며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시였다. 세기적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륭성과 번영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 자주, 자립, 자위의 강위력한 사회주의조선이 일떠서게 된것도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지난날 국제무대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가 온 세상에 존엄높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위용을 떨치게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인민의 수령으로 높이 모시였기때문이다. 주체사상의 기치높이 자주로 민족의 존엄을 빛내이며 자립으로 나라의 부강번영을 이룩하고 자위로 사회주의보루를 지켜나가는 나라, 바로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가장 귀중한 혁명유산으로 물려주신 사회주의 내 조국이다.

우리 조국을 위대한 수령님의 나라로 빛내여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이어나가시는 희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여 오늘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영예는 온 누리에 더 높이 떨쳐지고있다.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위대한 나라로 빛내이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특출하고 비범한 령도로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힘있게 이끌어나가고계신다. 눈부시게 변모되는 우리 조국의 모습과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는 우리 조국의 국제적지위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셔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강성번영도 있다는 력사의 진리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진군길에서 더욱 뚜렷이 확증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조국의 품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이며 우리 민족의 앞날은 원수님을 모시여 끝없이 휘황찬란하다는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고 어머니조국을 위해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야 할것이다.

윤 철 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안북도를 현지지도하신 5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안북도를 현지지도하신 50돐기념보고회가 10일에 진행되였다.

보고회에는 도안의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리만건 평안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주체53(1964)년 8월과 9월 평안북도에 대한 현지지도는 도를 강력한 공업기지, 튼튼한 알곡생산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력사적인 로정이였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신의주화학섬유공장과 신의주방직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공장관리운영과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고 말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신의주화학섬유공장 관계부문 기술일군협의회를 소집하시고 생산공정을 완비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며 갈발 정보당 수확고를 계통적으로 높일데 대하여 교시하시였으며 도당위원회 상무위원회 확대회의를 지도하시면서 도앞에 나선 경제과업과 그 수행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신의주시내 공장, 기업소들을 돌아보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조직들이 수령님의 현지교시관철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지난 50년간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신의주화학섬유공장과 신의주방직공장의 로동계급은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기고 자체의 힘으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우리의 원료에 의한 화학섬유와 천생산을 늘임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말하였다.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농촌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감으로써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켰다고 강조하였다.

도의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이 부강조국건설에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경제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놓은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도내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감으로써 절세위인들의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나가며 수령결사옹위의 전통을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의 4대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혁명가, 열렬한 애국자로 준비시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갈데 대한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일본 교도통신사대표단을 만났다

【평양 9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10일 만수대의사당에서 후꾸야마 마사끼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교도통신사대표단을 만나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김창광 조선중앙통신사 사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후대사랑을 전하는 감동깊은 일화들

외진 산골에 세워진 새 분교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어느해 겨울 연탄군을 현지지도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한 산골마을의 학생들을 만나주시였을 때의 일이다.

너무 기뻐 발을 동동 구르는 학생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느 학교에 다니는가, 학교는 어디에 있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그때 한 일군이 학교가 있는 곳을 말씀드리였다.

일군의 대답을 들으시고 산등을 따라 뻗은 길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학교가 멀다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힘들겠다고 조용히 되이시며 저으기 안색을 흐리시였다.

이윽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가 여기에 분교를 세워주었더라면 아이들을 고생시키지 않았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시급히 분교를 세워줄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불과 10명도 되나마나한 학생들을 위하여 새 분교를 내오다니?!)

일군들의 이러한 생각을 헤아려보신듯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의 장래문제를 어떻게 아이들의 수에 비교해서 처리하겠는가고 하시며 그렇게 할수 없다, 우리가 이 추운 겨울날 쉬지 못하고 다니는것도 다 아이들의 장래를 위한것이다, 단 한두명의 어린이가 이 마을에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꼭 분교를 세워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이렇듯 후대들을 위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떠받들리여 이름없던 외진 산골마을에 학생들을 위한 아담한 분교가 일떠서게 되였다.

사랑의 다리

주체62(1973)년 12월 지방의 어느 한 마을을 지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돌다리로 건너가는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시였다.

이윽고 아이들을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너희들은 매일 이 돌다리를 건너 학교에 다니는가고 물으시였다. 아이들은 그렇다고 신이 나서 대답올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름철에 물이 불어날 때에는 어떻게 건너다니느냐고 다시금 물으시자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와 오빠, 언니들이 업어서 건네준다고 저마끔 자랑삼아 대답올렸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이들이 넘어다닌다는 고개마루며 굽이굽이 흐르는 수정천을 바라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그러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어린것들이 돌다리를 건너 학교에 다니기가 얼마나 불편하겠는가고 하시면서 애들이 다니는 개울에 다리를 놓아주자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한 일군이 그이께 이곳에서 그 개울을 건너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여라문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올렸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신중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여라문명이 아니라 한두명이라도 다리를 놓아줍시다.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을 어떻게 머리수로만 헤아려보겠습니까. 빨리 아이들에게 넓고 환한 다리를 놓아주도록 합시다. …

그후 개울에는 돌다리대신 사랑의 다리가 생겨나게 되였다.

아이들을 위해 바치신 혁명시간

지난해 5월 어느날 평양시 묘향산등산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득 일군들에게 야영생들이 몇시에야 야영소로 돌아오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오후 5시경에야 등산을 끝내고 내려오게 되여있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빨리 가서 야영생들을 다 데려와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여기까지 왔다가 야영생들을 만나보고 그들과 기념사진도 찍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몹시 섭섭해할것이라고,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야영생들을 만나보고 가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있어서 한 초한초의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것인가.

하지만 그이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을 위해 천금과도 같은 시간을 아낌없이 바쳐가시며 아이들을 기다려주시였다.

아이들을 위해 바치신 시간,

정녕 그것은 후대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내 조국의 밝고 창창한 미래를 앞당겨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귀중한 혁명시간이였다.

본사기자 정순학

당의 구상을 자랑찬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투쟁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키자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

승리의 화살표따라 총돌격 앞으로

비일류부언제공사의 돌파구를 열어제낀 황해남도려단 전투원들의 투쟁위훈

《주의, 목표 좌안지대, 전체 출발!》

영차, 영차, 어기영차…

려단장의 힘찬 구령에 이어 우렁찬 함성이 울려퍼지는 속에 근 10척에 달하는 배들이 비일류부언제구간을 향해 일제히 진격해나갔다. 금시라도 배들을 통채로 뒤엎을듯 쏴— 쏴— 격랑을 일으키며 용용히 굽이쳐흐르는 청천강의 거센 물결을 헤가르고 돌격대원들이 련속 좌안지대를 타고앉았다.

이것은 희천5호발전소건설의 마지막기본목표인 비일류부언제공사를 기어이 앞당겨 끝내기 위한 총돌격전의 장쾌한 시작이였다.

그때로부터 10여일간, 불꽃튀는 건설투쟁속에 날이 저물고 자랑찬 위훈으로 새날을 맞던 그 잊지 못할 낮과 밤들에 우리의 미더운 주인공들은 과연 무슨 힘으로 어떤 기적을 창조하였던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원대한 건설구상을 자랑찬 현실로 펼쳐나갈 불타는 열의를 안고 건설전투장마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킴으로써 백두산대국의 위용과 선군조선의 기상을 만방에 떨쳐나가야 합니다.》

시작부터 치렬한 돌격전의 련속이였다. 극도로 불리한 조건과의 싸움인 비일류부언제공사는 과연 사람의 힘이 기계의 힘을 릉가할수 있는가, 자연의 도전을 이겨낼수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말그대로 총포성없는 대결이였다.

때없이 쏟아지는 소낙비와 세찬 강물로 하여 륜전기재들의 기동로들이 모두 막히고 굴착기들이 물먹은 강기슭에 도저히 들어설수 없었다. 특히 공사장의 매우 가까이에 철길이 있는것으로 하여 자그마한 발파도 들이댈수 없었다.

—우리 발전소건설장은 단순한 공사장이 아니라 강성국가건설대전의 최전방이다.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서라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기어이 발전소를 완공해야 한다!

함마를 틀어쥔 지휘관도, 질통을 진 대원들도 오직 이 하나의 생각으로 심장을 펄펄 끓이며 기초굴착에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시추작업을 맡은 재령군대대 전투원들이 앞장에서 두몫, 세몫씩 해제끼며 기초암반을 찾아나갈 때 김명식, 김철환, 장성일, 정한림동무를 비롯한 도탐사관리국대대와 연안, 봉천군대대, 해주시대대의 지휘관, 돌격대원들은 곡괭이와 삽으로 토사굴착을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였다.

련이은 암반굴착전투, 한번 함마를 잡아 보통 200회, 1인당 하루 평균 대형화물자동차로 한차분에 달하는 버럭 처리!

보통사람들은 엄두도 낼수 없는 일이 이곳 공사장에서는 평범한것으로 되였다. 얼마나 세차게 휘둘렀으면 새 함마가 이틀사이에 언저리가 다 모지라져 마치 은백색의 꽃처럼 보였겠는가.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 속에서도 이곳 돌격대원들은 현장에 천막을 치고 숙식하면서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련 4일동안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치렬한 돌격전을 벌려 방대한 량에 달하는 토사 및 암반굴착과제를 기어이 완수하고야말았다.

비일류부언제의 속벽콩크리트치기는 한층 더 어려웠다. 청천강물이 아직도 줄지 않고 물살이 매우 센 조건에서 려단장 김석철동무는 수중다리를 특색있게 놓고 대형화물자동차를 앞에서 마력수가 큰 중기계설비로 끌면서 세멘트를 보장할 대담한 작전을 펼치였다. 참모장 리강선동무를 비롯한 지휘관, 돌격대원들은 강기슭에 골재채취장을 기동성있게 전개하여놓고 필요한 모래와 자갈을 제때에 마련하였으며 45°가 넘는 경사면을 하루에도 100여차례씩 오르내리며 콩크리트치기를 드세게 벌리였다. 서로서로 손잡아 이끌고 힘껏 떠밀어주며 사정없이 지쳐내리는 아슬아슬한 고비들을 넘긴적은 그 얼마였으며 발바닥에 딱총을 놓고 등과 허리에 두툼한 옷들을 덧대면서 질통을 져나른 때는 또 몇번이였던가.

《정말이지 우리에게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올해 중요건설대상의 첫자리에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에 오직 실천과 실적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자각, 뼈가 부서져 가루가 되여도 당이 제시한 승리의 화살표따라 완공의 날을 기어이 앞당겨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만이 차고넘쳤습니다.》

오늘도 그때를 돌이켜보며 이곳 정치일군인 신광철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정녕 붉은기를 대오앞에 펄펄 휘날리며 비일류부언제의 속벽을 한치한치 다져나가던 이들의 모습은 한목숨바쳐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던 1950년대 영웅전사들의 군상그대로였다.

공사에 참가한 각 대대의 전투원들은 불타는 충정과 애국적헌신성으로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박차며 전투장마다에서 가슴뜨거운 화폭들을 펼치였다.

황해남도려단의 전체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기계설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던 방대한 량의 토사 및 암반굴착과 1차 속벽콩크리트치기과제를 예정기일보다 절반이나 앞당겨 성과적으로 해제끼고 마침내 비일류부언제공사의 돌파구를 통쾌하게 열어제끼였다.

뿐만아니라 3개의 수문기둥에 대한 콩크리트치기를 동시에 완강하게 내밀었으며 하부설비조립이 진척되는데 맞게 발전기실공사도 힘있게 다그치였다.

그렇다. 혁신의 밑뿌리,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사상이다. 이곳 전투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발전소건설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무조건 끝내야 한다는 불굴의 정신력과 헌신적인 투쟁기풍을 남김없이 발휘하였기에 이렇듯 자랑찬 위훈을 창조할수 있었던것이다.

오늘도 황해남도려단의 미더운 지휘관, 돌격대원들은 기본언제건설을 마감단계에서 동시에 다그치면서 비일류부언제공사를 빠른 시일안에 질적으로 끝냄으로써 완공의 령마루에 승리의 기발을 남먼저 휘날릴 열의드높이 전투장마다에서 비약의 폭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새로운 침착기가 용을 쓴다

희천9호발전소건설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재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질좋고 다양한 건재를 더 많이 연구개발하며 현대적이며 능률적인 건설설비와 기공구들을 적극적으로 연구도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희천9호발전소건설장을 찾은 우리는 새로운 침착기(침입식착암기)의 위력을 공사현장에서 직접 목격할수 있었다.

—침착기를 리용하여 근 4 000㎥의 암반굴착과제 단 20일동안에 수행!

이곳 착암공들이 그토록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저저마다 칭찬하는 침착기에 대한 자랑을 들으며 처음에는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굴착공사장에서 침착기의 작업모습을 보면서부터 우리의 의문은 감탄으로 바뀌였다.

무엇보다도 천공속도가 빠르고 순환당 진도도 종전의 착암기를 리용할 때보다 훨씬 높아서 좋았다.

우리가 지켜보는 속에 맞은편 벽의 돌출부에서 작업하는 종전의 착암기는 1.5m정도 깊이의 구멍을 뚫었다. 그런데 침착기는 덩지큰 천연바위에 깊이가 2배이상 되는 큰 직경의 구멍을 뚫는것이였다. 이에 따라 발파작용반경이 또한 훨씬 컸다.

《이 침착기는 종전의 착암기에 비해 천공깊이는 물론 직경이 근 3배 되는 발파구멍을 뚫어 암석 1㎥당 폭약과 뢰관, 도화선소비를 각각 1/3, 1/20, 1/10로까지 줄일수 있게 합니다. 로력은 30%나 절약되고 발파효률도 높습니다. 특히 우리 침착기는 압축공기압력에 대한 요구가 높지 않아 아무데서나 쓰기 정말 좋습니다.》

발파가 진행된 후 현장을 돌아보며 시공참모 박수성동무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말이였다. 새로운 침착기는 국가과학원 중앙광업연구소 실장 김수찬동무와 연구사 변철영동무가 연구개발한것이라고 하였다.

자체의 힘과 지혜로 더 훌륭한 설비를 만들어내겠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배짱을 지닌 이들은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피타는 사색과 고심어린 탐구를 기울임으로써 우리의 실정에 맞는 새형의 침착기를 훌륭히 제작하였다. 이들은 자기들이 만든 침착기를 가지고 희천9호발전소건설장으로 달려나와 우안 및 좌안언제와 발전기실, 취수구와 방수로를 비롯한 전반적인 대상들의 굴착공사를 빠른 속도로 다그칠수 있게 성심성의로 도와주었다. 특히 현장도입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침착기의 성능을 더욱 개선하고 연구소와 해당 단위를 수없이 오가며 침착기의 심장부인 침입머리를 비롯한 많은 중요부분품들을 해결함으로써 발전소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하기에 이곳 건설자들은 10여대의 종전 착암기를 리용하여 석달은 실히 걸려야 수행하던 암반굴착과제를 이 침착기를 받아들여 한달동안에 해제끼는 기적을 창조하고 콩크리트치기실적을 부쩍 높임으로써 모든 수문기둥들을 일떠세우는 자랑찬 위훈을 창조하였다. 돌격대원들의 아낌없는 호평을 받고있는 침착기는 발전기실굴착공사에서도 자기의 놀라운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발파후 버럭처리를 미처 따라세우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건설전투에서 제일 어려운 작업대상중의 하나가 바로 암반굴착이다. 우리는 방수로구간의 1만여㎥에 달하는 암반굴착과제를 빠른 시일안에 끝낼 높은 목표밑에 신심드높이 돌진하는 착암공들을 보면서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만이 아닌 전국의 모든 대자연개조전투장에서 우리 식의 새로운 침착기를 널리 받아들일 때 보다 큰 비약과 혁신이 창조될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단숨에 비약하자

현지보도

함경남도려단전투장에서

여기는 불꽃튀는 건설전투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희천11호발전소공사장이다.

3개의 작업전선이 펼쳐진 드넓은 건설장에서 지금 함경남도려단 지휘관, 돌격대원들이 완공의 령마루에로 단숨에 비약할 열의드높이 립체전, 전격전에 드센 박차를 가하고있다.

강철팔을 련속 들어올리는 굴착기들과 꼬리를 물며 질풍같이 내달리는 대형화물자동차들, 만부하의 동음드높은 혼합기들과 압축기들이며 장사진을 치고 구보로 내달리는 돌격대원들, 세차게 펄럭이는 붉은 기폭들과 현장을 들었다놓는 경제선동으로 하여 온 공사장이 말그대로 불도가니마냥 부글부글 끓어번진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건설전투장들에서 창조되는 새로운 건설속도와 시대정신은 천만군민을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영웅적투쟁과 위훈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합니다.》

발전기실공사장에 전개된 광차운반계통이 큰 은을 내고있다. 방사포의 일제사격인양 5대의 혼합기들에서 길게 뻗어내린 철판을 타고 잘 이겨진 진회색의 혼합물들이 줄기차게 쏟아져내린다. 잠간사이에 혼합물을 가득가득 담아실은 광차들이 타입전투장을 향해 앞을 다투며 내달린다. 유휴자재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만든 짝지발모양의 레루받침대들이며 륜환식으로 형성해놓은 특색있는 운반선로들이 볼수록 이채롭다.

양수기와 압축기를 비롯한 각종 설비들이 기운차게 용을 쓰는 속에 콩크리트치기전투가 절정에 이른다. 북청군대대와 장진군대대, 홍원군대대와 리원군대대의 전투원들이 불이 번쩍 나게 일손을 다그치며 휘틀안에 혼합물들을 구석구석 골고루 채운다.

덕성군대대와 단천시대대의 정치지도원들인 박일현, 신광철동무, 성천강전기공장대대 1중대장 한성국동무와 미더운 이곳 돌격대원들이 웃동을 벗어제끼고 돌격전의 앞장에 선다. 얼마전 갑자기 불어난 큰물속에서 정치부장의 기동적인 지휘밑에 귀중한 륜전기재와 위험에 처한 어린이를 한몸 서슴없이 내대고 구원한 주인공들이다. 다짐공들이 요동치는 진동기를 두손으로 억세게 틀어잡고 혼합물속에 푹푹 박을 때마다 거품이 끓으며 진한 물기가 내배인다.

정평군대대와 허천군대대의 전투원들이 기세를 올릴 때 반대켠에서도 수문기둥건설이 한창이다.

안전모를 맵시있게 눌러쓰고 휘틀우에 올라선 처녀신호수가 량손에 갈라쥔 수기를 흔들며 호각을 부는데따라 혼합물바가지가 아득한 높이의 수문기둥우로 서서히 오른다. 혼합물바가지를 받기 바쁘게 전투력이 강하기로 소문난 흥남항대대의 돌격대원들이 완성단계에 이른 수문기둥의 콩크리트치기를 질적으로 다그친다.

《지금 려단에서는 지난 시기 공사에서 찾은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발전기실과 수문기둥콩크리트치기, 새로운 구간의 기초굴착을 립체전, 전격전의 방법으로 줄기차게 내밀고있습니다. 우리는 함남의 불길높이 단숨에 비약함으로써 제기일에 발전소를 기어이 완공하겠습니다.》

대형화물자동차들이 련속 들이닥치고있는 기초굴착전투장에서 우리와 만난 정치부장 신학철동무의 패기에 넘친 말이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온 건설장에 창조의 동음이 힘차게 울려퍼지고 혁신의 새 소식들이 나래돋친듯 전해진다.

—장진군대대와 단천시대대의 전투원들, 발전기실콩크리트치기에서 련일 혁신!

—8월 건설계획 기한전에 넘쳐 수행한 기세로 일별전투과제 어김없이 완수!

시간이 흐를수록 비약의 열풍이 휘몰아치는 속에 만년언제가 더욱 힘차게 치솟아오른다.

특색있는 기술공법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수력설비조립사업소에서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 달려나온 수력설비조립사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높이 여러가지 특색있는 기술공법들을 적극 창안도입하여 공사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시대적요구와 건설대상의 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공법들을 창안하고 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며 최신공법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야 합니다.》

작업날개실조립을 성과적으로 끝낸 사업소앞에 뜻밖의 정황이 조성되였다. 예상치 못했던 사정으로 주요하부설비인 고정륜이 미처 도착하지 못하였던것이다. 하부설비조립이 선행되는데 맞게 발전기실콩크리트치기가 따라서는 조건에서 다음대상인 고정륜을 설치하지 못한다는것은 그만큼 공사일정이 지체된다는것을 의미하였다.

—고정륜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다그칠 방도는 없겠는가.

사업소일군들인 한길환, 박명훈동무들은 해당 려단들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기술자, 기능공들과 집체적토의를 거듭하면서 합리적인 방도를 진지하게 탐구해나갔다. 이 과정에 설비조립1직장 직장장 리인성동무와 기술과장 주성현동무가 고정륜을 들여앉힐것을 타산하여 가상공간을 미리 설정해놓고 그에 맞추어 옆면을 따라가며 회리실조립을 먼저 진행하자는 혁신적인 방안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경험이 한번도 없는데다가 천에 하나라도 오차가 나타나면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되는것으로 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도리머리를 저었다.

《올해 당앞에 결의다진대로 발전소건설총공사량의 85%를 무조건 해제끼자면 기술자, 기능공들을 대담하게 믿고 대중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난관을 뚫고나가야 합니다. 사업소의 기술력량을 총집중하여 대담한 공격전을 들이댑시다.》

신심에 넘친 초급당비서 최창일동무의 열정적인 호소에 모두가 새로운 용기를 가다듬으며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사업소에서는 유능한 기술자, 기능공들로 자체의 기술력량을 강화하고 콤퓨터와 기중기차를 비롯한 각종 설비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 회리실조립공사를 박력있게 내밀었다.

발전설비조립에서 풍부한 경험을 소유하고있는 박명훈, 리인성, 주성현동무들이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여 가상공간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설정해나갈 때 공정원 김명수, 3작업반 반장 오영환동무들은 로동자들과 함께 합리적인 통로개척과 특색있는 운반방법들을 적극 창안도입하였다.

특히 설비조립1직장과 2직장의 일군들과 기능공들이 공사장마다에서 엄청나게 무거운 하부설비들을 다루면서도 섬세하고 침착한 일솜씨로 회리실조립을 하나하나 책임적으로 해나갔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는 강한 배짱과 담력을 지니고 독특한 기술공법들을 련속 대담하게 받아들인 이곳 사업소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회리실조립과제가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정확히 수행되였으며 발전기실콩크리트치기도 계속 힘있게 다그쳐졌다.

하기에 회리실조립이 완성되고 고정륜까지 미세한 편차도 없이 정확히 들어앉았을 때 설계와 시공, 감독분야의 많은 일군들이 이들의 높은 기술기능수준과 세련된 경험, 대담한 착상과 완강한 실천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에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새로운 장치를 기발하게 창안제작하여 또 다른 발전소 발전기실의 하부설비조립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창조한 수력설비조립사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특색있는 기술공법들을 대담하게 창안도입하며 비약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축산물생산에서 틀어쥔 두가지 문제

운전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운전군이 축산물생산에서 도적으로 앞서나가고있다. 이 성과는 당의 축산정책을 받들고 축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문제점을 바로 찾아쥐고 방법론있게 실천하고있는 군일군들의 사업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축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군일군들은 축산물생산을 늘이는데서 두가지 문제를 중시하였다.

그 하나가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먹이문제를 해결하는것이였다. 여기서도 기본은 비알곡먹이리용에서 좋은 경험을 적극 찾아 일반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군에는 축산에서 비알곡먹이비중을 높이고 고기와 알생산을 많이 하여 덕을 크게 보는 전형단위들이 있다. 운하협동농장에서는 여러 정보의 밭에 사이그루로 심어가꾼 먹이풀과 큰단백풀, 자연풀까지 포함하여 년간 600여t의 비알곡먹이를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내밀고있었다. 대오협동농장은 논판에 오리를 놓아길러 많은 알곡먹이를 절약하면서도 고기와 알생산을 잘하는데서 전국적으로 이름난 단위였다.

일군들은 이 단위들에서 우선 농장일군들을 위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였다. 그후 이들이 이 사업을 통해 어떤 경험을 배웠는가, 배운데 기초하여 자기 단위에서 실정에 맞게 축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계획은 어떻게 세웠으며 그 수행방도를 바로 찾았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그리고 농장일군들이 초급일군들과 함께 전형단위들을 찾아가 그들에게도 좋은 경험을 배워주도록 하였다.

이런 조직사업은 농장들사이에 전형단위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축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이 일게 한 계기점으로 되였다. 농장들에서는 축산물생산의 직접적담당자들을 전형단위들에 보내여 비알곡먹이생산리용방법에 대해 자기 단위의 실정과 결부하여 깊이있게 배우도록 하였다. 여기에 기초하여 비알곡먹이비중을 높이면서 축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경쟁적으로 실천해나갔다.

일군들은 그런 경쟁열의를 계속 높여주기 위해 전형단위들의 범위를 벗어나 보여주기사업을 더 폭넓게 조직하였다. 한것은 이 단위들의 축산업발전수준이 높은데다가 벌방지대에 있기때문이였다. 군은 벌방, 중간, 산간지대로 구분되여있다. 그런데로부터 자연풀원천이 부족하거나 먹이풀재배조건이 불리한 농장도 있다. 이들은 그런 특성에 맞게 보여주기장소를 각이한 지대의 농장들에 정하였다.

보석협동농장 제1작업반 비육분조도 그렇게 선정한 대상의 하나였다. 이 분조에는 극히 적은 면적의 비경지가 있다. 때문에 비육분조원들은 합리적인 재배방법을 받아들여 비경지리용률을 최대로 높이는것과 함께 집짐승우리주변과 물웅뎅이에도 호박, 아카시아나무, 큰단백풀 등을 심고 자래웠다. 이렇게 마련한 비알곡먹이를 리용하여 지난해에만도 고기생산을 계획보다 넘쳐하였다. 이들의 비알곡먹이생산리용방법은 조건이 불리한 지대의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에게 매우 경험적이였다.

일군들은 비알곡먹이원천을 늘일수 있는 방도도 찾아주었다. 감자잎, 줄기를 집짐승먹이로 리용하도록 한것이 그 하나의 실례이다. 지난 시기 농장들에서는 록비효과를 얻기 위해 감자를 수확한 다음 잎과 줄기를 포전에 묻었다. 감자잎, 줄기를 이렇게 리용하는것보다 그것을 집짐승에게 먹이고 그 배설물로 만든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포전에 내는것이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이면서도 축산물생산을 늘이는데서 더 실리적이였다. 보여주기사업을 계기로 그에 대해 옳게 인식한 농장일군들은 감자잎, 줄기절임까지 하여 집짐승먹이로 널리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축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지름길은 과학화를 실현하는데 있다.

일군들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과학기술성과를 받아들여 비알곡먹이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었다. 김인룡동무를 비롯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일군들은 은정복합균에 대해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과학연구기관 연구사들의 방조밑에 그것을 일부 농장의 축산물생산에 받아들이였다. 결과 이 복합균이 알곡먹이뿐만아니라 난알짚, 풀짚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며 발효기간이 짧아 알곡기질감소가 적어져 먹이량을 늘일뿐만아니라 집짐승의 소화흡수률과 증체률, 면역기능을 높이는데서 종전의 균들에 비해 우월하다는것을 확증하게 되였다. 이들은 신심을 가지고 이 단위들에 대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여 모든 농장들에서 비알곡먹이의 효과성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였다.

일군들이 축산물생산을 늘이는데서 중시한 다른 하나의 문제는 종자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축산에서도 종자가 기본이라고 간곡하게 가르쳐주시였다. 일군들은 축산에서 앞선 단위들의 실태를 놓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의 정당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였다. 그런 단위들에서 기르는 풀먹는집짐승가운데는 우량품종이 적지 않았던것이다. 때문에 모든 농장 축산작업반, 비육분조가 그 단위들처럼 되게 하자면 종자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였다.

일군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중심고리를 군자체의 종축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리는데서 찾았다. 그렇게 하면 농장들에서 자체로 우량품종을 마련하느라고 품을 들이지 않아도 될뿐만아니라 종자를 기술적요구대로 생산보장하는 정연한 체계를 세울수 있었다. 그런데로부터 이들은 우량품종의 집짐승종자를 확보하는것과 함께 군종축장을 개건하여 능력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세우게 되였다.

이들은 대중의 열의를 불러일으키고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그것을 완강하게 실천하면서 종자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나갔다. 한편 이들은 축산작업반, 비육분조들에서 영양가높은 먹이풀을 리용할수 있게 하기 위해 군종축장에 1정보의 채종포전을 꾸리고 해당한 먹이풀을 심도록 하였다. 이 먹이풀을 리용해본데 의하면 풀 10kg은 강냉이 1kg과 맞먹을 정도로 효과가 있었다. 때문에 일군들은 채종포전에서 이 먹이풀종자를 기술적요구에 맞게 생산하여 농장들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도 놓치지 않고 내밀었다.

군당위원회에서 당의 축산정책관철정형을 계획적으로 총화하여 좋은 경험은 살리고 부족점은 제때에 바로잡도록 하면서 이 사업을 일관성있게 밀고나간 결과 좋은 결실이 맺어졌다. 지난 시기 축산에서 자랑할만 한 비육분조가 불과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면 이제는 그 수가 수십개로 늘어났다.

일군들은 해놓은 일에 대한 만족에는 답보가 뒤따를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모든 농장의 비육분조가 다 전형단위로 될때까지 당의 축산정책관철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나무모생산 훨씬 장성

화평군산림경영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무모생산을 앞세우는것은 산림을 전망성있게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입니다.》

화평군산림경영소에서 나무모생산능력을 종전에 비해 훨씬 끌어올리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이곳 산림경영소에서는 앞으로 몇해동안에 수천정보의 산림을 더 조성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실속있게 세워나가고있다.

이곳 산림경영소에서는 지난 기간 나무모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 힘을 넣어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미 대흥조림작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창조적지혜를 합쳐 짧은 기간에 회전식분무장치를 원형나무모재배장에 설치하고 나무모생산의 집약화를 실현하여 적은 면적에서 더 많은 나무모를 생산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놓았다.

산림경영소에서는 지난해에 분쇄기, 성형기, 절단기 등 현대적인 설비들을 그쯘히 갖춘 나무모영양단지생산기지를 일떠세웠고 수백㎥의 온실도 훌륭히 건설하였다. 지난해 9월에는 자성강을 끼고있어 물원천이 풍부한 유리한 곳에 5천㎡에 달하는 나무모야외재배장을 번듯하게 꾸려놓았다.

리재철동무를 비롯한 산림경영소의 일군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산림감독분소들에서 산리용반을 적극 리용하여 더 많은 나무모를 생산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일군들의 창조적인 사업기풍과 혁신적인 일본새, 대중의 헌신적투쟁에 의해 산림조성의 첫 공정인 나무모생산이 종전에 비해 훨씬 늘어났다.

지금 산림경영소의 조림작업소, 산림감독분소들의 나무모밭들에서는 다음해 봄부터 산에 심을 수백만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이 키돋움하며 자라고있다.

산림경영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조국의 산들을 더욱 푸르게 할 불타는 애국의 일념안고 물주기, 김매기, 비료주기 등 나무모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해나가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동세웅

평화의 나날 피어린 싸움의 영예로운 승리자

자강도인민보안국 폭발물처리대 대장이였던 박금산동무에 대한 이야기

자강도인민보안국 폭발물처리대 대장이였던 박금산동무는 도지역관내에서 발견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적폭발물들을 처리하던중 장렬하게 희생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온 주체의 당기와 선군혁명의 전취물들, 이 땅우에 마련된 사회주의재부들마다에는 인민보안원들이 흘린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있습니다.》

51살!

생을 끝마치기에는 아쉬운 나이였지만, 가야 할 인생길은 아직 멀고멀었지만 그는 작렬하는 원쑤의 포탄에 주저없이 몸을 내대였다.

피끓는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아 부대의 돌격로를 열어제낀 전화의 영웅들처럼, 비발치는 적기총탄앞에 한몸을 내대여 귀중한 혁명동지를 구원한 인민군용사들처럼 그는 자기의 한목숨을 바쳐 나라와 인민의 생명재산을 지켜냄으로써 평화로운 이 땅에서 오늘도 계속되는 가증스러운 원쑤 미제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다.

하기에 우리는 한 인민보안원의 가슴아픈 희생이 아니라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빛나는 위훈을 아로새긴 영예로운 승리자의 장하고도 억센 삶을 온 세상에 전한다.

4만 1,293번째 위훈

지난 7월 18일 정오였다.

한낮의 해볕이 사정없이 내려쪼이던 그때 자강도인민보안국 폭발물처리대원들은 동신군에 있는 한 철도역부근에서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었다. 며칠전부터 그들은 동신군의 일부 지역에 대한 폭발물탐지처리전투를 진행하고있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포탄 두발과 신관 2개를 발견하였던것이다.

깊은 땅속에서 거뭇한 형체를 드러낸 평사포탄과 철갑탄에 증오의 눈빛들이 화살처럼 날아가 박혔다.

《순폭시킵시다.》

대장 박금산동무가 폭발물처리대원들인 리영길, 최은성동무들에게 하는 말이였다.

리영길, 최은성동무들이 화약과 도화선을 날라오는 등 폭발물처리를 위한 준비를 갖추는 동안 그는 순폭장소를 어디로 정할것인가 하는 생각을 굴리였다. 폭발물처리에서 중요한것은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다. 그런데 폭발물을 발견한 곳은 사람들이 붐비는 철도역부근인데다가 멀지 않은 곳에 도로까지 있어 순폭장소로서는 적합치 않았던것이다. 그의 뇌리에는 그곳에서 좀 멀리 떨어진 청천강상류의 인적없는 기슭이 떠올랐다.

《영길동무와 은성동무는 내뒤를 따를것!》

순폭준비가 원만히 갖추어진 그 시각 박금산동무는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포탄 두발을 성큼 안아들었다. 어지간한 무게가 두팔에 묵직하게 실리였다.

대원들이 그의 앞을 막아나섰다.

《대장동지, 순폭지점을 가리켜만 주십시오. 포탄은 우리가 날라가겠습니다.》

무섭게 번뜩이던 그의 눈빛이 대뜸 부드러워졌다.

《이런 일은 내가 해야 마음이 편한걸 어찌겠소. 동무들은 화약이랑 가지고 천천히 따라오오.》

타이르듯 조용히 하는 말이였으나 거역할수 없는 준절함이 느껴졌다.

박금산동무는 걸음을 내짚었다. 가파로운 비탈길, 울퉁불퉁한 돌밭길을 그는 몸자세를 가누며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머리우에서는 삼복의 폭양이 돌멩이라도 삶아낼듯 따갑게 내려쪼였다. 그의 이마와 두볼에서는 굵은 땀방울들이 쉬임없이 흘러내려 달아오른 포탄에 뚝뚝 떨어졌다.

자칫하면 생사가 판이 나는 위험천만한 폭발물을 안고 앞장서 걷는 그의 모습은 폭발물처리대원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눈에 익은것이였다. 동무들은 폭발물을 찾기만 하라고, 처리는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서 탐색과정에 나타나는 폭발물들의 신관해제와 순폭작업을 솔선 맡아나서군 하던 그였다.

박금산동무는 드디여 마음속으로 점찍은 장소에 다달았다.

포탄을 조심조심 땅에 내려놓은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청초한 풀숲이 우거진 둔덕아래로 긴 띠를 이룬 청천강물이 한낮의 정적속에서 자기만이 아는 노래를 고요히 부르며 흘러가고있다. 철길과 도로도 아득히 멀어졌고 인가도 아물아물 점처럼 보인다. 길이라고는 철도역과 마을을 련결한 좁은 외통길 하나뿐인데 점심참이여서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도 마음을 놓을수는 없었다.

박금산동무는 대원들에게 다시 명령을 내렸다.

리영길동무는 마을쪽, 최은성동무는 철도역쪽으로 각각 300m씩 가서 차단근무를 설것!

이번에도 대원들은 펄쩍 뛰였다. 순폭작업을 또 대장동지가, 안됩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는 대원들의 등을 떠밀어보내며 그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시침과 분침보다 먼저 고귀한 글발이 안겨왔다.

《김일성》

절세위인의 성스러운 존함을 그는 숭엄하게 우러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폭발물처리대 대장 박금산은 그날의 영광을 승리자의 위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박금산동무와 오랜 기간 함께 일해온 리영길동무는 그의 심장에 울린 이 충정의 목소리가 들리는듯싶었다.

몇해전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표창을 수여받았을 때 그는 얼마나 영광스러워하였던가.

《폭발물처리대원으로서 응당 할 일을 하고있을뿐인데 이런 영광이 차례지다니… 영길동무, 이 은덕에 어떻게 하면 다 보답할수 있을가.》

남모르는 전투임무수행의 길에서 세운 위훈을 헤아려 어버이장군님께서 안겨주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는 평화의 날 피어린 싸움에 나선 그에게 있어서 크나큰 힘이고 고무였다. 그 시계를 보며 박금산동무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목숨 아낌없이 바칠 불굴의 신념을 더욱 굳게 가다듬군 하였던것이다.

(생사를 기약할수 없는 어려운 전투의 앞장에는 언제나 폭발물처리대 대장인 내가 서야 한다.)

박금산동무는 이렇게 마음다지며 물가로 들어섰다. 강이라고 하지만 물깊이가 얕고 잔잔한것이 시내나 다름없었다. 강복판을 향하여 얼마쯤 들어간 그는 절반은 물에 잠기고 절반은 드러난 너럭바위우에 포탄 두발과 신관 2개를 올려놓고 화약을 장진한 다음 도화선을 늘이였다. …

최은성동무는 차단근무를 서면서 대장이 순폭작업을 하는 모습을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도화선에 불을 단 대장이 강둔덕쪽으로 날쌔게 뛰여가는 모습이 보였다. 잠시후 《쨍—》하고 요란한 폭음이 울려퍼졌다.

얼마후 둔덕아래 은폐하였던 박금산동무가 일어나 순폭장소로 향하는것을 본 최은성동무는 그쪽으로 걸음을 내짚었다. 맞은켠에서는 리영길동무가 마주 왔다.

이때였다. 추상같은 웨침소리가 고즈넉한 강변을 흔들었다.

《오지 말라!》

비상정황이 발생하였다는것을 깨달은 리영길, 최은성동무들은 대장의 웨침에도 아랑곳없이 순폭장소를 향하여 뛰여갔다. 그러면서 살펴보니 평사포탄과 신관 2개는 처리되였으나 철갑탄은 터지지 않은것이 눈에 띄였다. 경험많은 예리한 눈으로 철갑탄의 신관부위겉면에 금이 쩍 간것을 알아본 리영길동무는 가슴이 철렁하였다.

바로 그때 그들이 곁에 다가온것을 알아챈 박금산동무가 비호같이 몸을 돌리더니 《오지 말라는데…》라고 하며 그들을 와락 밀쳐버리는것이였다.

땅에 넘어지는 순간 그들은 박금산동무가 자기 몸으로 철갑탄을 덮는것을 보았다.

《대장동무!》

그와 때를 같이하여 아츠러운 폭음이 귀청을 째였다. …

박금산동무가 자기의 한몸으로 덮은 철갑탄, 그것은 그가 처리한 4만 1,293번째 폭발물이였다.

그것은 박금산동무가 한생토록 목숨을 내댄 수자로서 그가 한돌기한돌기 쌓아온 위훈의 높이였다.

이 땅의 한치한치에 스민 고귀한 피와 땀

2003년 9월에 자강도인민보안국 폭발물처리대 대장으로 임명받은 박금산동무는 가렬한 전화의 나날로부터 수십년간 걸어온 폭발물처리대의 행적을 더듬어보았다.

남모르는 길이였다. 걸음걸음 생명을 내대야 하는 위험천만하고도 간고한 길이였다. 미제침략자들이 패배자의 몰골을 하고 항복서에 도장을 찍은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전쟁기간 놈들이 미친듯이 뿌린 폭탄과 포탄을 비롯한 각종 폭발물들은 아직도 정체를 깊이 감춘 흉물스러운 원쑤마냥 이 땅의 곳곳에서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피해를 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있었다.

(안된다!)

박금산동무는 이를 악물고 부르짖었다. 정전이 되였어도 아직 끝나지 않은 미제의 간악한 기도, 지금도 계속되는 원쑤들의 반인륜적범죄를 맞받아 용감히 싸울 각오가 그의 심장속에 불타올랐다.

박금산동무는 폭발물처리대사업이 무엇보다도 수령결사옹위의 길과 잇닿아있다는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

몇해전 겨울이였다. 폭발물처리대가 도안의 일부 지역에 대한 탐지처리전투를 끝마치고 돌아온것은 한밤이 깊어갈무렵이였다.

모두들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시중군의 한 강바닥에서 폭탄이 발견되였다는 통보가 들어왔다.

박금산동무와 폭발물처리대원들은 다시 장구류들을 갖추고 길을 떠났다.

자정이 넘어 현지에 도착한 그들은 즉시 폭탄조사에 착수하였다. 북방의 맵짠 바람은 금시 살을 베여갈듯이 기승을 부렸지만 박금산동무는 얼음버캐가 앉은 차디찬 강물에 주저없이 들어섰다. 대원들도 그의 뒤를 따랐다.

해당 지역의 일군들이 달려왔다. 래일 해가 퍼진 다음 강에 들어가든가 해야지 동상을 입는다고 막아나서는 그들을 향해 순박하게 웃던 박금산동무의 눈빛이 강물우를 가로질러간 철다리에 가닿았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어버이장군님께서 이 깊은 밤에도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우리 자강땅을 찾으실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런 말을 남기고 얼음이 버걱거리는 강물을 앞장서 헤쳐가는 그를 바라보는 대원들의 가슴속에도, 일군들의 가슴속에도 뜨거운것이 차올랐다. …

이렇듯 불같은 충정을 안고 박금산동무는 자강도의 많은 도로들과 철길들의 주변 그리고 무수한 산발들에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자욱을 아로새겼다.

그가 대장으로 일하는 기간 자강도인민보안국 폭발물처리대는 자기 도만이 아닌 평안남도, 함경북도, 황해남도,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각지의 여러 지역들에 대한 폭발물탐지처리전투를 맡아함으로써 수만발의 폭발물을 안전하게 처리하였다.

박금산동무는 평시에 늘 이렇게 말하군 하였다.

《우리는 누구인가. 폭발물처리대원들이다.

폭발물처리대원은 수령결사옹위의 제1선투사가 되여야 하며 나라와 인민의 생명재산을 지키는 첫번째 방패가 되여야 한다.

그런 까닭에 우리 폭발물처리대원들이 진행하는 하나하나의 전투는 오직 승리로만 이어져야 한다.》

하다면 폭발물처리대원의 전투승리는 무엇으로 담보되는가.

무비의 용감성이 첫째가는 담보라고 한다면 그에 못지 않은 또 다른 중요한 담보는 높은 책임성과 무한한 성실성이다.

몇해전 봄 어느날 박금산동무와 폭발물처리대원들은 홍원군에서 폭발물탐지처리전투를 진행하고있었다.

… 삐삐— 삐삐—

탐지기의 신호음은 그냥 불안스레 울렸다.

음색과 음파의 길이로 보아 분명 큼직한 폭탄이 있을듯싶은데 아무리 파고파도 결과가 없는것이 이상하였다.

비지땀을 흘리며 삽질을 하던 한 폭발물처리대원이 박금산동무에게 말을 건넸다.

《대장동지, 혹시 여기에 자철광이 묻혀있는게 아닙니까?》

박금산동무는 《글쎄.》라고 하며 계속 파내려갔다. 3m이상 깊이까지 내려갔으나 쇠쪼박 하나 나지지 않았다.

우물처럼 깊어진 웅뎅이바닥에 탐지봉을 가져다대니 비상신호음이 다시 울렸다.

2m이상 되는 뾰족한 지레대를 가져다가 깊숙이 찔러보았지만 지레대끝에도 와닿는것은 없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박금산동무는 대원들을 둘러보았다.

벌써 몇달째 함경남도의 철도연선들과 도로주변에 대한 폭발물탐지처리전투를 진행하고있는 그들이였다. 그날도 한곳에서 오래동안 땀을 빼다나니 모두 지친 기색들이였다.

(정말 자철광이 묻혀있는걸 가지구 괜히 대원들을 고생시키는것이 아닌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정확히 확인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한 박금산동무는 대원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오늘 숨어있는 적폭발물을 찾아내지 못하면 래일엔 그놈이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해치게 되오. 우리는 이 땅의 한치한치를 피와 땀으로, 필요하다면 목숨으로 담보해야 할 폭발물처리대원들이 아니요.》

그의 절절한 이야기는 폭발물처리대원들의 머리속에 며칠전에 있은 일을 떠올렸다.

그날도 그들은 한 철다리주변에서 강물속을 훑고있었다. 그런데 강한복판에서 비상신호음이 여무지게 울렸다. 즉시 강바닥을 파기 시작하였으나 세찬 물살에 파는족족 메워졌다.

대원들이 난감해할 때 박금산동무가 물속에 우물정자로 뚝막이를 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그리하여 가까운 림산사업소에 가서 통나무를 날라다가 뚝막이작업을 하고 탐지전투를 계속하였다.

이런 간난신고끝에 찾아낸것은 뜻밖에도 길다란 레루장이였다.

감쪽같이 속았다고 모두들 어이없어하였지만 박금산동무는 기뻐하였다. 지대의 안전성을 확인했으니 절대로 헛수고는 아니라는것이였다.

맡은 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무한한 성실성, 그것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박금산동무의 열렬한 사랑이고 헌신이였으며 참다운 복무자세였다.

이러한 복무자세를 지니고 대원들을 이끌어주는 그였기에 이날전투에서 폭발물처리대는 5m가 훨씬 넘는 깊은 땅속에서 150kg짜리 폭탄을 끌끌내 찾아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박금산동무는 늘 폭발물처리전투의 순간순간 인민의 생명안전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였다.

그가 생의 마지막으로 진행한 폭발물처리전투에서 순폭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정한것도 인민들에게 털끝만 한 피해도 주지 않기 위해서였고 순폭장소를 강기슭이 아니라 강물속의 바위우로 정한것도 강변에 한점의 불찌라도 날려 화재위험이 조성될가봐 념려한때문이였다.

한 신입대원이 폭발물탐지를 하면서 논물이 차있는 뙈기논을 무심히 스쳐지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폭발물처리대원이 남긴 공백은 귀중한 인민의 목숨, 나라의 재산으로 보상되게 된다고 하면서 지친 몸도 아랑곳없이 다시 탐지기재를 들고나선 박금산동무!

온 나라 방방곡곡에 숨어있는 간악한 원쑤, 적폭발물을 찾아 그가 걷고걸은 수많은 자욱자욱에서 우리는 열화같은 조국애, 인민애로 불타는 고결한 심장의 메아리를 듣는다.

우리 폭발물처리대원들이 있는 한 이 땅의 생명 하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절대로 못 다친다!

희생속의 랑만

희생!

폭발물처리대원들의 삶을 우리는 이렇게 밖에 달리 부를수 없다.

인민보안원으로서 그들의 복무의 날과 달은 피와 땀을 바치고 목숨을 내대야 하는 위험한 전투로 이어지기때문이다. 한해치고 여덟, 아홉달은 외지에 나가 살아야 하는 그들의 생활 역시 단란한 가정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쉽게 택할수 없는 자기희생적인 순간의 련속이기때문이다.

이렇듯 간고하고 준엄한 투쟁과 생활속에 누구나 부러워할만 한 크나큰 기쁨과 랑만의 세계가 있다는것을 우리는 박금산동무에 대한 폭발물처리대원들의 추억담을 들으며 깨달았다.

자강도인민보안국의 다른 부서에서 복무하던 송상철동무는 두해전에 자원하여 폭발물처리대원이 되였다.

그는 대규모의 축산기지건설을 앞둔 세포지구에서 폭발물처리대원으로서의 첫 발자욱을 내짚었다.

남다른 포부와 리상을 안고 폭발물처리대로 온 상철동무였지만 첫 전투에 나서고보니 가슴이 마냥 두근거리였다.

그가 잔뜩 긴장한 마음으로 탐지기재를 든 박금산동무를 따라 세포등판의 쐐기풀밭을 훑어나가는데 탐지기재에서 비상신호가 났다.

순간 송상철동무는 팔다리가 뻣뻣이 과다들어 그 자리에 멈춰섰다. 금시 발밑에서 우뢰같은 폭음이 울릴것만 같은 생각까지 났다.

이때 박금산동무가 그의 등을 툭 치며 무랍없이 말하는것이였다.

《상철동무의 첫시작이 괜찮소. 벌써 한놈 걸려들었으니 말이요.》

그러더니 탐지기재를 내려놓고 땅을 조심조심 파헤치기 시작하였다. 상철동무도 그를 도왔다.

한참동안 파내려가니 적비행기폭탄의 흉물스러운 날개가 삐죽이 솟아올랐다. 이어 폭탄이 동체를 다 드러내자 박금산동무는 상철동무에게 무엇인가를 쑥 내밀었다. 담배였다.

《신관해제는 내가 할테니 한대 피우오.》

대장의 여유작작한 태도에 상철동무는 마음이 저으기 안정되는것을 느꼈다. 자기가 담배 한대를 붙여무는 사이에 박금산동무가 량쪽의 신관을 제꺽 분리해내는것을 본 그는 눈이 휘둥그래졌다. 해제된 폭탄을 나르면서도 그의 눈앞에는 금시 터질것만 같은 폭발물을 능숙하게 다루던 대장의 용감무쌍한 모습이 얼른거리였다.

그로부터 며칠만에 송상철동무는 50kg짜리 폭탄을 단독으로 탐지하여 순폭시키였다.

그때의 추억을 더듬으며 송상철동무는 말하였다.

《대장동지는 나보다 더 기뻐하였습니다. 그날 내 손을 잡고 폭발물처리대원들은 처음으로 폭발물을 처리한 때의 일을 한생토록 소중히 여긴다, 그 기쁨은 만풍년의 첫 수확을 안아온 농장원의 기쁨이나 첫 제품을 내놓은 로동자의 희열에도 비기지 못한다, 이 땅의 평화가 있고서야 풍작의 기쁨도, 창조의 희열도 있는것이 아닌가고 하던 대장동지의 이야기를 잊을수 없습니다.》

폭발물처리대원들에게 있어서 미제가 남겨놓은 폭발물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이 다 인민의 생명재산과 날로 커가는 행복을 노리는 위험천만한 원쑤이다. 하기에 날마다 하는 일이지만 폭발물을 마주할 때마다 그들은 매번 자신들의 생사를 걸고 가증스러운 원쑤와의 피어린 싸움에 나서는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희생만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 길을 주저없이 그리고 끝까지 갈수 있으랴.

평화로운 날의 피어린 싸움으로 인민의 생명재산과 행복을 지켜간다는 긍지와 보람, 바로 이것이 박금산동무가 대원들의 가슴속에 새겨준 희열이며 혁명적랑만이다.

《우리 대장동무가 언제 제일 기뻐했는지 아십니까?》

폭발물처리대 당세포비서 양광혁동무의 이야기는 이런 물음으로 시작되였다.

이곳 폭발물처리대원들이 강원도지구에서 폭발물탐지처리전투를 벌리던 때의 일이다.

며칠째 험한 산발을 오르내리였지만 폭발물 한개도 나지지 않았다.

사실 기뻐해야 할 일이였다.

하지만 박금산동무는 안절부절을 못하였다. 그 지구로 말하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의 폭격과 포격만행이 가장 심한 지역의 하나였다. 그런데 포탄 한발도 나오지 않고있으니 마치 숨어있는 원쑤를 그냥 두고 지나치는것만 같아 가슴이 졸아들었던것이다.

박금산동무는 탐색밀도를 더욱 조밀하게 하였다. 그러다나니 하루에 10m도 전진하지 못하는 때도 있었다. 하지만 폭발물처리대원들이 매일 실지 걸은 거리는 120여리에 달하였다.

어느날 밤 대원들이 깊은 잠에 곯아떨어지였을 때 양광혁동무는 박금산동무에게 걱정어린 어조로 물었다.

《탐색해야 할 지역이 아직 많은데 그러다 대원들이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박금산동무는 입술이 터갈라진 대원들의 얼굴을 한명한명 여겨보며 신심에 넘친 목소리로 말하였다.

《이겨냅시다. 최후에 웃는자가 승리자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스무날이 흐른 뒤 깊은 산골짜기에서 불과 대여섯kg에 달하는 포탄 두발을 맨 처음으로 발견하였을 때 박금산

동무는 기쁨을 금치 못하며 호탕하게 웃었다.

《아무렴, 우리 손에선 단 한발도 새여나가지 못한다니까.》

조국의 전진앞에 놓인 장애물, 인민앞에 놓인 위험을 기어이 찾아내였다는 크나큰 희열이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나오고있었다. …

그에 대한 동지들의 추억은 끝이 없었다.

열렬한 조국애를 지니고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랑림군의 와갈봉혁명전적지와 인산리지역의 높고 험한 산발을 수없이 넘나들면서 5만 5,700㎡에 대한 발굴전투를 벌려 55종에 80여점의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유물들을 찾아낸 사실이며 전투임무수행과정에 언제나 동지를 먼저 생각하고 대원들가정의 살림살이를 제 집살림살이처럼 위해준 가슴뜨거운 이야기들.

참으로 혁명선렬들의 피가 스며있는 이 땅을, 동지들과 가정을 남달리 사랑하였기에 그 사랑을 지켜 서슴없이 한몸을 내댄 박금산동무, 그는 값높은 최후의 순간에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는 희생속의 희열과 랑만이 무엇인가를 대원들의 가슴속에 다시한번 깊이 새겨주었다.

* *

박금산동무는 이렇게 4만 1,293번의 승리를 이 땅우에 새기고 갔다.

그 승리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소중히 얹은 꽃다발이다.

사진속에서도 박금산동무는 고요히 웃고있다.

영예로운 승리자의 장한 미소가 우리의 가슴을 파고든다.

그는 자기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영예로운 그 삶이 세대를 이어 줄기차게 이어지리라는것을 조금도 믿어의심치 않는것이다.

그렇다. 그의 빛나는 삶은 오늘도 억세게 이어지고있다.

박금산동무의 맏아들 박진혁동무는 군사복무를 마치고 강계농림대학입학시험에 응시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통지서를 받게 되였다. 하지만 그는 대학공부를 뒤로 미루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자강도인민보안국에 입대할것을 탄원하였다.

박금산동무의 빛나는 최후에 대하여 알게 된 자강도안의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말하고있다.

《사람이 살다가 생을 마치는것은 매한가지인데 우리도 박금산동지처럼 빛나게 살고 죽어도 그처럼 빛나는 최후를 마치겠습니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는 피와 땀속에 인생의 참된 영광이 있습니다.》

박금산동지여, 들으시는가. 우리 새 세대들의 이 진정의 목소리를.

정녕 박금산동무는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 미제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였고 오늘도 값높은 인생의 철리로 이 땅의 수많은 용사들을 영예로운 승리의 길로 떠밀어주고있다.

본사기자 허명숙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영국기업가대표단 경모의 정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0일 예브게니 레베브를 단장으로 하는 영국기업가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것으로 하여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으시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도이췰란드사회민주당 국제위원회 위원장 회담

도이췰란드련방공화국을 방문한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강석주동지와 닐스 안넨 도이췰란드사회민주당 국제위원회 위원장의 회담이 8일에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대표단성원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상대측에서 련방의회 사회민주당 그루빠 대외정책조정자, 사회민주당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 본부사무소 소장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두 당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회담은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대표단은 이날 닐스 안넨위원장이 마련한 연회에 초대되였다.

한편 강석주동지는 도이췰란드련방공화국 외무성 대표 등 관계자들을 만나 담화를 하였다.

우간다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임명

우간다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임명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우간다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로 명경철동지가 임명되였다.

유럽동맹—아시아쎈터대표단이 떠나갔다

프레이저 캐머론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럽동맹—아시아쎈터대표단이 10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일본 교도통신사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후꾸야마 마사끼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교도통신사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이 력사의 집에 깃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일가분들의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이밖에 손님들은 주체사상탑, 만수대창작사를 참관하였다.

가구제품, 일용품도안전시회 개막

가구제품, 일용품도안전시회가 개막되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산업미술창작단위들과 교육부문의 창작가, 교원, 연구사, 학생들, 가구제작, 일용품생산단위의 도안가, 설계가, 로동자들이 내놓은 특색있고 쓸모있는 380여점의 도안들과 430여점의 실현제품들이 출품되였다.

개막식이 10일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에서 진행되였다.

김용진내각부총리, 관계부문 일군들, 창작가, 설계가, 교원, 학생들, 미술애호가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김용진내각부총리가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이번 전시회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앞장에서 힘차게 전진하는 주체산업미술의 발전면모를 과시하는 의의깊은 계기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창작가, 설계가, 교원, 연구사, 학생들과 로동자들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이번 전시회에 손색이 없는 훌륭한 도안들과 제품들을 내놓은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그는 모든 참가자들이 우리 인민의 기호와 미감에 맞는 도안들과 제품들을 더 많이 창작완성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대고조진군을 추동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등판마다에 사슴떼흐를 그날을 그리며

김형권군 사슴목장을 찾아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금 우리 청년들의 정신상태는 대단히 좋습니다.》

얼마전 후치령넘어 김형권군에 들어선 우리는 이 고장에서 손꼽히는 사슴목장을 찾았다.

《때마침 왔습니다. 지금 사슴떼들이 방목지로 나가려는 참입니다.》

목장지배인 홍택수동무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하는 말이였다. 이어 그는 이 고장은 류달리 해비침시간이 길고 또 해비침률도 높다고, 그리고 산중에는 사슴먹이가 150여가지나 있어 사슴을 기르기에는 안성맞춤이라고 하였다.

《오-나, 오-나…》

사슴들을 부르는 방목공들의 목소리가 높고낮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골안을 꽉 채웠다. 목장에는 여러개의 장안이 있었는데 한 장안에 있는 수십마리의 사슴들을 3명의 방목공들이 관리하고있었다.

우리는 리성철, 리혁일, 강정심동무들과 함께 방목의 길에 올랐다.

강정심동무가 소금주머니를 흔들며 앞장에 섰고 리성철, 리혁일동무들은 뒤에서 사슴떼를 몰아갔다. 어떤 사슴들은 목에 댕기를 둘렀고 또 어떤 사슴들은 방울을 달았다.

《댕기와 방울은 정심동무가 말을 잘 듣는 사슴들에게 준 〈표창〉입니다.》

사슴떼를 정답게 바라보며 리성철동무가 하는 말이였다. 그는 중학교를 졸업한 때로부터 20여년세월을 방목공으로 일해오고있었다. 방목생활의 나날에 청춘의 사랑도 꽃펴나 행복한 가정도 이루었고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도 지니였다고 한다.

리성철동무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김형권군에 사슴목장이 생긴것은 수십년전이였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그토록 마음쓰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사슴목장을 일떠세우도록 하시고 그 사양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산림을 리용하여 리로운 동물을 많이 증식시켜 산들에 사슴과 노루, 클락새와 같은 동물이 옥실거리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방목공들에게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리성철동무는 말하였다.

《우리 고향의 모든 산들에 사슴떼가 흐르게 하자는것이 우리들의 결심입니다.》

어느덧 사슴떼는 방목지에 이르렀다. 리성철, 리혁일동무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허리춤에 찼던 낫들을 빼들고 걸음을 옮기였다. 그들은 방목지주변을 돌면서 산림의 맹수들이 사슴들가까이로 다가오지 못하게 하면서 빼곡이 자라는 나무들을 적당한 간격으로 쳐주는 일을 하였다. 그래야 사슴을 감시하기에도 편리하고 또 나무의 성장에도 유리한것이다.

사슴떼가 한눈에 보이는 등판의 너럭바위우에서 우리는 강정심동무와 마주앉았다. 올해 23살의 처녀인 그는 신기하게도 크기나 생김새에 있어서 판에 박은듯싶은 사슴들의 번호며 취미, 성격들을 환히 꿰들고있었다.

강정심동무는 사슴들도 주인이 가까이에 있어야 풀도 잘 뜯고 놀기도 잘한다고 신바람나서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사슴을 길들이는데 얼마만 한 시일이 걸렸는가고 묻자 그는 《정을 기울이기탓이지요.》 하고 명쾌하게 대답하였다.

이윽고 그는 무리를 뛰쳐나간 사슴을 찾기 위해 온종일 산속을 헤매던 일이며 갓난 사슴을 안아다 키우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들에게는 명절날, 휴식일이 따로 없다. 하루도 방목의 길을 그치는적이 없다. 보이는것은 이깔나무와 풀판, 들리는것은 새소리뿐…

《사슴떼가 흐르는 등판을 보시면 우리의 원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강정심동무가 하는 말이였다. 그는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슴떼흐르는 등판을 보시며 잠시나마 피로를 푸시였으면 하는것이 우리 방목공청년들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였다.

바로 이런 그들이기에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도 억척스레 사슴들을 키웠고 먹이장, 놀이장들을 훌륭히 꾸리였으며 나라의 산림에도 성실한 땀을 바쳐가는것이였다. 등판에 펼쳐진 청춘의 량만도 인상깊고 많은 사슴을 키워낸 그 성과도 대단하였지만 우리의 가슴을 더욱 울려준것은 외진 산속에서도 조국을 알고 받아안은 은덕에 보답할줄 아는 새 세대들의 뜨거운 지향이였다.

우리는 이곳 청년들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펼쳐질 그날을 그려보며 등판을 내리였다.

글 본사기자 리경일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배구경기장에 비낀 승벽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과 사회발전의 요구에 맞게 온 사회에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워 모든 근로자들이 생활을 문화정서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름다운 대동강과 보통강주변은 물론이고 마을마다 새 공원들이 꾸려져 평양시민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그러한 기쁨중의 하나가 배구장에서 한껏 열을 올려 로동으로 쌓인 피로를 풀고 이웃들과의 화목을 두터이하는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얼마전 평천구역 북성2동의 5, 6인민반을 한개 팀으로 하고 7, 8인민반을 다른 팀으로 하여 진행되였던 배구경기를 보고서도 느낄수 있었다.

경기장에 들어서는 자기 팀 선수들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는 인민반원들의 감흥은 류달랐다. 평시에는 다정한 이웃이였던 선수들이 인민반의 명예를 걸고 나선 장한 모습들로 안겨왔던것이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인 리윤성동무가 상대팀 선수들가운데서 낯익은 모습들을 알아보았다.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인 리명도, 리성국동무들이였다.

자기들을 바라보며 웃음짓는 스승의 모습을 바라보는 리명도, 리성국동무들의 얼굴에 한순간 긴장한 기색이 어리였다.

리윤성동무가 일부러 그들에게 엄지손가락을 내흔들었다. 학습에서도 경기에서도 절대로 양보를 모르는 실력가가 되기를 바라는 사려깊은 스승의 말없는 격려에서 신심을 얻은 그들이 자신만만하게 자기 위치들을 차지했다.

심판으로 나선 김성복동무가 경기시작을 알리는 호각소리를 울리였다.

불만 한 장면들이 련속 펼쳐졌다. 김은철동무의 맵짠 타격을 재치있게 막아내는 조명성동무, 리경철동무의 기묘한 살짝공도 자신만만하게 받아내는 리윤성동무, 반칙동작들에 대한 심판 김성복동무의 엄격한 호각소리…

시간이 갈수록 경기는 더욱 치렬해졌다.

득점할 때마다 와— 하는 함성과 요란한 박수소리, 선수들을 고무하는 목소리들로 하여 배구장이 떠나갈듯 하였다.

《7층 4호집 사위가 제일이다.》

《우리 인민반에 저렇게 훌륭한 배구선수들이 있는데 인민반들을 돌아다니며 대항경기를 하자요.》

응원자들이 더욱 신바람이 나서 소리쳤다.

《당신은 남들이 배구를 배울때 뭘 했어요. 이렇게 박수나 치고있는게 창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짬짬이 배구훈련을 하지 않아. 두고보라구. 다음번 경기때는 내가 단단히 한몫하는걸.》

남편과 안해의 싱갱이질에 응원자들속에서 폭소가 터져올랐다.

이날의 경기는 5, 6인민반 선수들의 승리로 끝났다.

경기가 끝난 다음 나누는 선수들의 진정이 넘친 인사말도 의미심장하였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번에 맞붙을 땐 잡도리를 잘해야지 만만치 않습니다.》

7인민반장 조영실동무가 아쉬운 마음을 좀처럼 눅잦히지 못했다.

《우리 선웅이 아버진 이럴때 출장을 떠날건 뭐람. 그렇지 않았으면 식은죽먹기로 이겼겠는데…》

그에 뒤질세라 6인민반장 손경애동무가 태연스레 말을 이었다.

《난 우리 세대주가 배구경기에 참가하겠다는걸 마음푹 놓고 출장을 떠나라고 했어요. 수준이야 어데 갈라구요.》

그바람에 경기장에 또다시 즐거운 웃음소리가 터져올랐다.

배구경기장에 넘치는 이런 희열과 랑만속에 인민반의 화목과 단합은 더욱 굳건해지고 그것이 그대로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혁신의 승벽심으로 이어지는것이다.

본사기자 조경철

어머니는 자식의 거울

신의주시 해방동 56인민반 천경순동무

어머니의 눈길이 자식에게 항상 닿아있듯이 자식의 눈길도 어머니에게 쉬임없이 가닿는다. 그 맑은 눈동자에 어머니는 어떤 모습으로 비쳐져야 하는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머니가 준 인상은 사람들의 성격과 습관을 이루는데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천경순동무는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의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어린이의 첫째가는 교양자는 어머니라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가슴에 새기였다.

그는 말을 해도 표준어를 썼고 행동거지도 소박하게, 옷차림도 깨끗이 하려고 애썼다.

몇해전 그는 집뜨락에 꽃밭을 꾸리였다. 꽃씨를 묻는 그에게 아들애가 물었다.

《어머니, 뭘하나요?》

《꽃을 심는다.》

《꽃은 왜 심나?》

《대원수님동상에 드릴거란다.》…

아들은 작은 손으로 이랑의 흙을 덮었다. 어머니와 함께 키운 금전화며 다리아 등 소담한 꽃송이를 안고 위대한 대원수님의 동상을 찾는 아들애의 얼굴에 남다른 자랑이 비껴있었다.

천경순동무의 가정에서는 집에서 키운 금잉어들과 백도라지, 은방울꽃, 목란꽃들을 만경대혁명사적지에 보내주었다.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을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건설자들에게 보낼 지원물자도 성의껏 마련하였다.

직장일, 가정일의 바쁜 속에서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높이 모시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 그의 모습은 어린 아들의 눈망울에 깊이 새겨지였다.

어느날 그가 퇴근길에 올랐는데 아들 주성이가 마주 달려와 매달리며 물었다.

《어머니, 난 회령고향집에 갈수 없나요?》

알고보니 그가 다니는 소학교 교직원들이 며칠후 회령으로 간다는것이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을 늘 그리며 사는 아들의 마음을 알게 된 그는 기쁨을 금할수 없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관리도구들을 정성껏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주성이는 김정숙어머님께서 탄생하신 력사의 땅 회령을 찾게 되였다. 어머님의 고향집을 돌아보고 회령혁명사적지 주변관리를 하던 못 잊을 추억은 지금도 그의 마음속에 뜨겁게 간직되여있다.

자식들은 자라면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 더 많이 알고싶어한다. 어머니는 처녀시절에 무슨 일을 했는가, 우리 어머니는 어떤 사람인가.

그의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사로청 제8차대회(당시)에 참가하였던 나날이며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던 자기의 잊지 못할 추억들을 이야기해주었다.

아들은 기쁨에 넘쳐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천경순동무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하였다.

(내가 지금 정열에 불타던 청춘시절처럼 삶을 줄달음쳐 살고있는가.)

아들의 티없이 맑은 눈빛이 지금도 그때처럼 살고있는가 하는 시대의 준절한 물음으로 안겨와 그는 자신에 대한 요구성을 더욱 높이리라 마음먹었다.

그는 기업소일군들에게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대학교육을 받을것을 제의하였다.

《가정부인의 몸으로 일없겠소?》

일군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으나 그는 자기의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어머니가 되고싶습니다.》

이렇게 그는 대학생어머니가 되였다.

저녁이면 그와 중학생인 아들사이에는 말없는 학습경쟁이 벌어지였다. 그가 우수한 성적을 맞으면 아들이 축하해주었고 아들이 5점을 맞으면 그가 꼭 껴안아주었다.

높은 시대적 지향을 안고 사는 어머니의 모습은 아들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모범이고 글짓기도 잘하는 그의 아들은 두해전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행사에 소년단대표로 참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기념촬영을 하는 영광을 지니였으며 올해 광명성절을 맞으며 김정일소년영예상을 받아안았다.

천경순동무가정의 모습에서 우리는 훌륭한 자식의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는것을 다시금 깨닫는다.

본사기자 허명숙

이름이 많은 집

해주시 옥계동 27인민반 김복순동무의 가정

우리가 해주시 옥계동 27인민반의 한 가정을 찾았을 때 처마밑까지 나무잎이 드리운 집뜨락에서 한 녀성이 꽃을 가꾸고있었다.

뙤약볕이 쏟아져내리는 한여름 시원한 그늘밑에서 여유작작하게 일손을 놀리는 그 모습은 류다른 정서를 안겨주었다.

《이 집이 바로 그 과일나무 집입니다.》

우리보다 한발앞서 대문안에 들어서며 도의 한 일군이 한 말이였다.

그는 감나무아지들을 흐뭇하게 올려다보다가 집주인인 김복순동무에게 우리가 찾아온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김복순동무는 《과일나무를 심어가꾼게 무슨 큰일이라고…》 하면서 홍조가 비낀 얼굴을 조용히 숙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이 활기있고 명랑하고 락천적인것은 그들이 모두 생활을 열렬히 사랑하고 자기가 수행하고있는 혁명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있으며 자기 힘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집을 둘러보니 감나무, 복숭아나무, 살구나무를 비롯하여 과일나무가 20여그루나 되였다.

키높은 나무들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귐소리는 또 얼마나 좋은가.

김복순동무는 나무가 우거지니 새들만이 아니라 다람쥐나 청서들도 많이 찾아온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였다.

그의 집에는 화초들도 많았다. 장미, 다리아, 국화…

방안에서 갑자기 짝자그르르 아이들의 박수소리가 울리였다.

《야, 금붕어가 또 늘었네.》

반쯤 열려진 문사이로 여라문명 되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다. 의아해하는 우리에게 김복순동무는 동네애들인데 물고기구경을 왔다고 하였다.

아이들 어깨너머 금붕어, 신선어, 공작어들이 유유히 꼬리치는 어항들이 보였다.

우리가 어떻게 되여 많은 과일나무도 심어가꾸고 물고기들도 기를수 있었는가고 묻자 김복순동무는 생각깊은 어조로 이렇게 대답하였다.

《생활을 문화정서적으로 할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겠습니까.》

알고보니 김복순동무는 조선문학예술총동맹 황해남도위원회에서 일하는 기간 많은 노래들을 작곡하여 내놓았는데 《그리움의 철쭉꽃》, 《더하기 좋아, 덜기도 좋아》, 《별 하나나 하나 세여갈 때면》과 같은 작품들은 전국적인 현상모집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지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력사적인 서한을 높이 받들고 대중의 심장을 쾅쾅 울리는 명작을 내놓기 위해 사색과 열정을 아끼지 않고있다.

그런 그의 집을 가리켜 마을사람들은 《작곡가네 집》이라고 정답게 부른다.

그뿐이 아니다. 그토록 바쁜 속에서도 인민군대원호사업과 황해남도물길건설장에 대한 지원사업에도 앞장서고있는 그의 집을 두고 군인들과 황해남도물길건설에 동원된 함경북도려단 포항구역대대의 돌격대원들은 《우리 집》이라고 부르고있다.

《생활을 문화정서적으로 할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귀전에서는 김복순동무가 한 이 말이 오래도록 사라질줄 몰랐다.

우리의 모든 집들이 이런 정다운 이름들로 불리울 때 생활은 또 얼마나 아름다와질것인가.

—애국은 자기 집뜰안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우리가 이름도 많은 집—김복순동무의 집을 나서며 한 생각이였다.

본사기자

옷차림과 머리단장을 선군시대 청년맛이 나게 하고있다. —자동화공학부에서—본사기자 김철우 찍음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진지를 철벽으로!

두 교육제도를 통해 본 밝은 미래, 암담한 현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입니다.》

얼마전 우리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동대원구역 3중영예의 붉은기 신리소학교를 찾았을 때였다. 해빛밝은 교정에서 마음껏 배움의 나래를 펴고있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부교장 박경애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비옥한 토양에서 곡식이 잘 자라듯이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혜택아래 우리 나라에서는 유능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낼수 있는 넓은 길이 활짝 열리였으니 참으로 얼마나 훌륭한 제도에서 아이들이 자라는것입니까.》

그의 말을 듣느라니 불현듯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이 발포되였을 때의 그 감격이 되살아났다.

…

1)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무료로 실시한다.

2)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받는 대상은 5살부터 17살까지의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다.

…

그때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얼마나 기뻐하며 설레이였던가.

어디서나 법령발포와 관련한 이야기꽃을 피웠으며 누구나 조국의 밝은 래일을 그려보았다.

교육사업에 조국의 미래가 비낀다. 태여나서부터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돈 한푼 내지 않고 공부도 하고 희망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는 우리 사회,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해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빛내여가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가 있어 우리의 학생들은 앞날의 기둥감으로 억세게 자라나고있는것이 아닌가.

이런 훌륭한 배움의 나라에서 사는 우리 인민처럼 복받은 인민이 이 세상 또 어데 있으랴.

하기에 어느 한 나라의 신문은 우리 나라의 교육제도에 대하여 칭송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그 나라의 장래를 알려거든 어린이들을 보라는 말이 있다.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드는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래는 창창하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는 어떠한가.

몇해전 어느 한 자본주의나라의 신문에 실린 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의 중학교학생들의 기초지식수준이 매우 한심한 상태에 있다고 하였다.

그 주요원인은 나라의 교육수준이 낮고 한창 공부할 나이의 학생들이 배움을 포기하는데 있다. 한창 배워야 할 시절에 그들은 왜 배움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여기에 대답을 주는 수자가 있다.

학비 2 600US$
하숙비 2 454US$
기숙사비 2 566US$

이렇게 일반대학비용이 년평균 8 000US$이니 어떻게 가난한 집 자식들이 대학공부를 꿈꿀수 있겠는가.

남조선사회는 또 어떠한가.

수많은 청년들이 초보적인 배움의 권리마저 빼앗긴채 사회의 버림을 받고있다.

남조선에서는 교육이 사람을 사회의 주인으로가 아니라 돈의 노예로 되게 하고있다.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요행 일자리를 얻으면 대학기간에 진 빚을 갚기 위해 일하고있으며 무엇을 하나 발명해도 일자리를 떼우지 않기 위해 하고있다.

인간을 돈의 노예로 만드는 그러한 교육을 어찌 사회적인간을 키워내는 사업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우리 나라에서는 대학생들이 학비를 내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한다.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하여 평양과 지방의 각 대학, 전문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자본주의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혜택을 받아안으며 학업에 열중한다.

판이한 두 교육제도를 놓고서도 우리의 사회주의가 얼마나 좋은가를 알수 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한없이 귀중히 여기며 강성국가건설에 한몸 다 바치는것을 긍지와 보람으로 여기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현경철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야수적학살만행에 격분을 금치 못해하는 참관자들
—수산리계급교양관에서—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사상전선의 전초병된 자각안고

강원도계급교양관 일군들과 강사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계급교양에서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교양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강원도계급교양관 일군들과 강사들이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투철한 계급의식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계급교양관 일군들과 강사들은 생동한 사실자료들을 가지고 해설강의를 참신하게 진행함으로써 참관자들의 가슴마다에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변할수 없는 침략적본성과 악랄성에 대하여 깊이 심어주고있다.

특히 계급교양관에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강원땅에 기여들어 무고한 인민들을 수많이 학살한 미제침략자들의 치떨리는 만행자료들을 새롭게 발굴하여 해설강의를 진행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원쑤 미제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슴 불태우게 하고있다. 이와 함께 계급교양의 실효를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해나가고있다.

도계급교양관 강사들은 참관자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구체적인 사실자료에 기초하여 강의를 설득력있게 진행하여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침략적본성과 착취적본성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인식시키고있다.

계급교양관에서는 매주 학술자료토론회와 강의합평회를 진행하여 강사들이 한번의 해설강의를 해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 투철한 계급의식을 더욱 깊이 새겨주는 실효성있는 해설강의로 되게 하고있다. 최근에만도 이곳 일군들과 강사들은 여러 지역들에 나가 전사자, 피살자가족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체험담도 수록하고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만행자료들도 새롭게 발굴고증하였다.

이와 함께 계급교양관의 일군들과 강사들은 영농전투로 들끓고있는 철원군의 협동농장들을 비롯한 협동벌들에 나가 농업근로자들의 가슴을 원쑤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태우는 선전활동과 이동식계급교양직관판을 리용한 계급교양을 활발히 벌리였다.

도계급교양관참관을 통하여 도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투철한 반제반미계급의식을 지니고 언제 어디서나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끝까지 고수하고 빛내여갈 굳은 결의를 가다듬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계급교양을 실속있게

철산군체신소에서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튼튼히 지켜가도록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군체신소에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이 감행한 야수적인 만행을 보여주는 직관판들을 생동하게 만들어놓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이와 함께 군계급교양관참관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 종업원들모두가 날강도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치솟는 증오심으로 가슴끓이게 하고있다.

특히 군체신소에서는 6.25를 맞으며 작업반별로 복수결의모임을 준비있게 조직하여 모든 종업원들이 날강도 미제는 절대로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철천지원쑤라는것을 심장깊이 새기고 원쑤들의 가슴팍에 총창을 박는 심정으로 맡은 일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로농통신원 방대삼

《언제나 민중속에 계시는 친어버이의 숭엄한 모습》

몇해전 남조선의 한 정치학교수가 《서방사회가 어둠속에 력사무대에서 사라져가는 사회, 묘지로 가고있는 어두운 장글사회라면 이북의 사회주의는 인류력사라는 지평선에 해돋이마냥 찬란한 빛을 뿌리면서 솟아오른 광명한 사회, 인간만세의 송가높은 인간중심의 락원이다.》라고 격조높이 주장한적이 있다. 그 주장이 오늘 더더욱 세찬 공명을 일으키며 남조선 각계에 메아리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오늘 우리 공화국은 천하제일강국, 사회주의문명국을 보란듯이 건설해나가고있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조국땅우에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날에날마다 더욱 높아가고있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개화기가 펼쳐지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경이적인 현실을 지켜보면서 남조선 각계는 인민의 리상과 꿈을 실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력에 찬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남조선언론들과 인터네트홈페지들에는 우리 인민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부럼없는 인민으로 되게 하기 위해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정치에 대한 각계층 인민들의 칭송을 담은 글들이 계속 실리고있다.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이북민중은 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국의 미래를 향해 질풍같이 나아가고있다. 이북에서 이룩되고있는 모든 성과들은 김정은령도자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 《북민중은 국가의 혜택속에 모두가 활기에 넘쳐 생활하고있다. 공화국의 품만이 온 겨레가 함께 안겨살 은혜로운 품이다. 하루빨리 통일렬차를 타고 북으로 가고싶다.》…

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는 《김정은시대에 대한 리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과정을 통해 민중을 사랑하시는 령도자로서의 특징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있다고 하면서 《현지지도의 길에서 군인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팔을 끼고 인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시는 김정은제1위원장의 독특한 정치방식은 북의 민중들로 하여금 자기 령도자에 대한 존경심과 믿음을 간직하게 하고있다.》라고 썼다.

《한겨레》를 비롯한 남조선언론들은 새 집에 입사한 평범한 가정을 찾으시여 허물없이 무릎을 마주하시고 가정형편도 물어주시고 사랑의 축배잔도 부어주시는 김정은령도자의 모습은 《언제나 민중속에 계시며 그들과 고락을 함께하시는 친어버이의 숭엄한 모습이였다.》고 전하면서 《김정은제1위원장은 권위를 세우지 않는 인민적이며 친화적인 지도력을 보여주고있다.》라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칭송하였다.

지금 남조선의 주요언론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이 나오면 그 즉시 받아물고 원수님의 영상사진문헌과 함께 그 내용을 빠짐없이 전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고 현지지도를 하실 때마다 사사건건 놓치지 않고 그 의미와 전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평가한 전문가들의 글을 싣는것도 하나의 관례로 되고있다. 남조선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최근 5년동안 남조선의 언론들과 인터네트가 전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기사들은 근 20만건이나 된다. 이밖에도 해외에 인터네트싸이트를 개설하고 우리 공화국을 칭송하는 사진 및 동화상을 제작, 배포하는 인터네트사용자들이 늘어나고있는것으로 하여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각계층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최근년간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와 청춘과원 고산과수농장,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등이 새롭게 일떠선데 대하여 전하면서 《김정은제1위원장이 문명강국건설에 직접 나서고있다.》, 《주민들이 즐기며 살도록 하기 위해 문화시설건설에 집중하고있다.》, 《세계적인 문화휴양시설건설로 사회주의문명국가의 체모를 갖추어나가고있다.》등으로 우리 공화국의 활기에 넘친 현실을 평하였다.

《한겨레》, 《경향신문》 등도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우리 공화국에서 릉라인민유원지,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미림승마구락부와 같은 대중적인 봉사기지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고있다고 소개하였다.

특히 남조선에서 려객선침몰사고로 수백명의 나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무고한 인민들이 대참사를 당한 때 북에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고 하면서 《김정은제1위원장의 활동은 매력적이고 자신만만한 모습이며 대중과 함께 있는 따사롭고 친근한 모습으로서 령도자로서의 완벽함과 원숙함을 보여주고있다.》고 격찬하였다. 그러면서 인민들에 대한 령도자의 친근감과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 제도에 대한 충정을 낳게 하는 근본요인으로 되고있다고 분석하였다.

온 남녘땅에 위인칭송의 열기가 높아가는 가운데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소개한 한 재미동포언론인의 글이 전해져 더더욱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재미동포인터네트신문《민족통신》대표는 인터네트홈페지에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귀하신 영상사진문헌을 정중히 모시고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정치와 그 생활력에 대해 소개한 《북녘동포들 가슴깊이 젖어든 령도자 사랑》이라는 제목의 조국방문기를 실었다. 필자는 글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덕정치는 감동그자체이며 수많은 일화를 낳고있다고 하면서 핵폭탄보다 강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을 낳는 그 뜨거운 인민사랑의 정치로 하여 공화국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고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어버이수령님 사랑그대로, 위대한 장군님 사랑그대로 우리의 원수님 정을 다해 인민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운 사랑은 이처럼 남조선민심을 끝없이 매혹시키고있다.

선군조선의 놀라운 비약에 남녘겨레들은 흥분을 금치 못하면서 마음속깊이 그려본다.

희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나라, 람홍색기폭을 무궁토록 휘날리며 최후승리의 리정표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휘황찬란한 앞날을.

본사기자 허영민

진보적인류의 마음을 틀어잡는 조선의 참모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인도네시아다양성당, 인도네시아드위미뜨라 뻐르까싸회사, 나이제리아주체철학연구소조, 영국신공산당에서 업적토론회가 8월 27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인도네시아다양성당 전국지도리사회 총서기는 공화국창건 66돐을 맞는 조선당과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심으로써 조선인민은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의 주인으로 되였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세계가 공인하는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오늘 조선인민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강성국가건설에서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

나이제리아주체철학연구소조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대원수님은 조선민족의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인민의 나라, 력사의 온갖 풍파에도 끄떡하지 않는 불패의 강국을 창건하고 이끌어오신 건국의 어버이이시라고 칭송하였다.

영국신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을 자주적인 나라로 건설하시였다.

그이는 인민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한평생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를 위하여 력사에 길이 빛날 고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자애로운 인민의 수령이시다.

그이의 건국업적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였으며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해 훌륭히 계승되고있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민주꽁고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총비서인 민주꽁고-조선친선 및 련대성협회 위원장 오떼떼 가스똥 음보요가 2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영웅적 조선인민과 함께 사회주의보루이며 주체의 강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66돐을 성대히 맞이하게 된다.

뜻깊은 이날에 즈음하여 진보적인류는 조선을 리상사회로 전변시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와 김정일령도자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있다.

조선을 인민의 나라로 건설하실 원대한 뜻을 품으신 그이께서는 항일대전시기 독창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경험을 충분히 쌓으시였으며 나라가 해방된 후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공화국의 창건은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세계앞에 실천적으로 명백히 보여주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혁명위업을 훌륭히 계승하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시고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을 확고히 실현하시였을뿐아니라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치시여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반공화국압살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조선을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령도자께서 계시였기에 조선은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한 강위력한 나라로 전변될수 있었으며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였다.

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참모습은 진보적인류 특히 우리 민주꽁고인민들의 마음을 세차게 틀어잡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의 사회주의건설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은 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언제까지 힘의 과신에 빠져있겠는가

최근 미국방성 대변인은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이 항시적으로 계속 진행될것이라고 떠벌이였다. 여기서 다시금 확언할수 있는것이 있다. 그것은 미국이 결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지 않으며 힘으로 우리 민족모두와 삼천리강토를 통채로 집어삼키려는 강도적야망을 버리지 않고있다는것이다.

미국의 대조선전략은 곧 힘의 전략이다. 우리에 대한 끈질긴 제재와 악랄한 봉쇄, 유화정책이 아무런 결실도 가져오지 못하게 되자 미국은 군사적힘에 의거한 위협과 공갈에 총력을 기울이고있다. 미국방성은 지난 3월에 발표한 4개년국방전략검토보고서라는데서 우리 공화국을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국가》, 《최대적수》로 규정하고 《북의 핵 및 미싸일위협에 대한 억제전략이 실패할 경우 무력제압을 통해 결정적승리를 이룩한다.》고 공언하였다. 수십년세월 조선반도에서 그칠 사이없이 벌어진 미군주도하의 합동군사연습들은 북침전쟁을 실천하기 위한 책동의 한 고리이다.

미국과 괴뢰패당의 북침전쟁연습은 그 규모와 회수에서 세계최대이고 내용에서 극히 위험천만한것이다. 현시기 세계적으로 규모가 크다고 하는 군사연습들은 기일이 1주일, 길어서 1개월가량이며 그것도 대체로 2년 또는 몇년에 한번씩 진행되고있다. 훈련내용과 방식도 특정국가를 적으로 정하지 않고 일반군사교류나 협동작전능력을 강화하는 훈련과 병종, 군종별훈련, 반테로, 재난구조훈련같은것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좀더 력사를 거슬러올라가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랭전종식을 전후하여 유럽에서 동서뿔럭사이의 합동군사연습들이 빈번히 벌어졌지만 그 규모와 회수는 엄격히 제한되여있었다. 합동군사연습에 1만 3 000명이상의 병력이 참가하는 경우 련속 3차례이상, 4만명이상의 병력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2년에 1차례밖에 할수 없었다. 더우기 다른 나라 수도점령연습이나 핵선제타격연습이라는 단어자체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볼 때 조선반도와 주변해역에서 벌어지는 합동군사연습들은 어떠한가. 회수에 있어서 해마다 40차이상에 달하고있으며 여기에 참가하는 인원은 50만명을 넘고있다. 전략핵폭격기와 핵항공모함, 핵잠수함들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노린 《맞춤형억제전략》을 적용하면서 《평양점령》연습까지 공공연히 감행하고있다.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을 노린 불장난소동에 미국이 《년례적》이라느니, 《방어적》이라느니 뭐니 하며 제아무리 면사포를 씌워도 그 침략적성격을 절대로 감출수는 없다.

미호전세력이 노리는것은 비단 우리 공화국만이 아니다. 미극동군 사령관이였던 맥아더는 조선반도전역에 대한 지배를 통하여 미국은 울라지보스또크와 싱가포르사이의 넓은 령역을 지배할수 있을것이다, 그때 미국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란 이 지구의 그 어디에도 없게 될것이다라고 뇌까렸다. 미군사전략가들은 쏘미랭전시기나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선반도를 세계를 《미국화》하기 위한 《대륙에로의 건늠다리》로, 아시아라는 《큰 고기덩이》를 잘라내는 《단검》으로 보고있다.

최근년간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보다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성격을 띠고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북침전쟁연습소동들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이에 대해 로씨야과학원 극동문제연구소 조선연구쎈터 책임자는 북남사이의 협력으로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가 해소되면 미국은 이 지역에서 설자리를 잃게 된다고 하면서 《미국은 지금 조선의 〈위협〉을 구실로 로씨야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책으로 지역내반항공체계를 구축하는것과 함께 최첨단군사기지를 배치하고있다. 다시말하여 북남관계긴장은 미국이 지역문제에 간섭할수 있는 구실을 준다고 볼수 있다.》라고 까밝혔다.

1년내내 우리의 눈앞에서 전쟁판을 벌려놓으며 힘의 우세를 시위하려드는 미국이 추구하는것이 무엇인가는 너무도 명백하다. 조선반도정세를 주기적으로 격화시켜 그속에서 침략적이며 패권주의적인 리익을 챙겨보려는것이 미국의 변함없는 속심이다.

지나친 과신은 자신을 망친다는 말이 있다. 미국은 이 땅이 결코 어제날 렬강들의 각축전으로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했던 수난의 대지가 아니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 공화국은 자주적인 주권국가이며 세계에 몇 안되는 핵보유국이다. 이제 더이상 그 누구도 우리 민족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어부지리를 얻을수 없다.

힘의 만능론을 제창하는 미제와의 대결에서 언제나 승리의 전통만을 새겨온 우리 공화국이다. 1950년대의 조선전쟁에서 마련된 이 전통은 정의의 핵보검을 틀어쥔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 영원한것이다. 미집권자들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배비된 미군속에서 날이 갈수록 우리의 핵, 우리의 미싸일에 대한 공포가 커가고있는데 대해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된다. 줄행랑도 제때에 해야 효과가 있는 법이다.

배금희

죄악에 죄악을 덧쌓는 반인륜적망동

남조선에서 《〈세월〉호특별법》제정문제가 시간이 흐를수록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다. 그것은 괴뢰당국에 대한 민심의 항거를 불러일으키는 불씨로 되고있다.

지난 8월 괴뢰국회에서는 《〈세월〉호특별법》제정문제를 둘러싼 여야간의 심각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론의의 초점은 《세월》호침몰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가, 특별검사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새정치민주련합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고 특별검사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인사를 늘이자는 주장을 들고나온 반면에 《새누리당》이 그 무슨 《법과 원칙》을 운운하며 그를 한사코 반대하여 《국회》 본회의는 아무런 결과도 없이 막을 내리고말았다.

새정치민주련합은 8월 하순 여야당과 《세월》호희생자유가족들이 참가하는 3자협의체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세월〉호특별법》제정을 토의할것을 《새누리당》에 공식 제안하였다. 하지만 《세월》호희생자유가족들의 의사에 《유연하게 접근》하겠다고 광고해온 《새누리당》은 정작 3자협의체구성문제가 제기되자 《의회민주주의훼손》이니, 《론의구도의 변질》이니 하고 생주정을 하면서 거부해나섰다. 《세월》호침몰사건과 관련한 집권세력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는 유가족측에 법의 칼을 쥐여주지 말자는것이 반역패당의 속심인것이다.

보수집권세력의 횡포에 격분한 유가족들은 집권자와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항의투쟁의 도수를 더욱 높였다. 남조선 각계는 유가족들의 단식투쟁을 지지하면서 집권자의 결단을 요구해나섰다. 새정치민주련합은 여당에 대한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규탄결의대회를 열었다. 그러던중 수십일간이나 단식투쟁을 벌린 한 유가족이 실신하여 병원에 실려가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 눈물겨운 정상앞에서 남조선 각계는 《〈대통령〉이 자식잃은 부모들의 손 한번 잡아주는것이 그렇게도 힘이 든가.》고 울분을 터치였다.

그러나 남조선집권자는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의회민주주의의 역할》이니 뭐니 하고 《새누리당》의 편역을 들면서 유가족들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졸개를 내세워 《〈특별법〉제정은 청와대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발뺌을 했다. 지어 당치않은 《배후》설을 내돌리며 사법당국을 폭압에로 부추겼다. 그에 따라 괴뢰정보원패거리들은 롱성투쟁현장을 고양이처럼 싸다니며 유가족들의 뒤를 캐는 놀음을 벌렸으며 단식투쟁현장에 감시설비까지 설치하고 각계의 동향을 사사건건 기록하였다. 괴뢰경찰당국은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교사선언을 게재한 전교조성원에 대한 구속놀음을 벌리였다.

이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울분은 더욱 치솟았다. 한 작가는 《〈세월〉호특별법》제정을 둘러싼 모든 문제는 집권자에 의해 생겨난것이라고 정면으로 비난하였다. 지난 8월 23일 3 000여명의 각계층 시민들은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특별법》제정을 요구하는 대회를 열고 청와대의 답변을 요구하였다. 서울대학교와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와 동국대학교를 비롯한 14개 대학교의 학생들과 8개의 대학생단체들은 《〈세월〉호특별법》을 속히 제정할것을 요구하여 청와대까지 항의행진을 진행하였다.

투쟁기운이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8월 30일 《세월》호사고희생자, 실종자, 생존자가족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수많은 단체들과 시민들은 《〈세월〉호특별법제정촉구 8.30국민대회》를 가지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집권자가 하루빨리 유가족들과의 대화에 나서며 《〈세월〉호특별법》제정을 위한 결단을 내릴것을 요구하였다. 파쑈당국이 집회를 가로막기 위해 30개 중대 2천여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하고 어마어마한 폭압분위기를 조성하였지만 집회참가자들은 굴함없이 청와대에로 행진해갔다. 경찰들과의 충돌과정에 부상자들까지 발생하였으나 격노한 시위자들의 투지는 꺾을수 없었다.

지금 《〈세월〉호특별법》제정을 요구하는 투쟁의 불길은 남조선전역에로 퍼져나가고있다. 《세월》호희생자유가족들의 롱성투쟁현장에서 단식에 함께 참가하고있는 시민들은 5천명을 넘어섰다. 서울은 물론 부산과 대구, 대전, 인천, 제주도를 비롯한 남조선의 각지에서도 롱성투쟁과 1인시위를 비롯한 항의투쟁이 적극적으로 벌어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이렇듯 피타게 《〈세월〉호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고있지만 괴뢰집권세력은 아직도 그에 등을 돌리는 오만한 태도를 취하고있다. 지난 2일 《세월》호희생자유가족들과 각계층 대표들은 《〈세월〉호특별법》제정을 요구하는 서명문을 안고 청와대앞에서 시위를 가지였다. 그런데 그날 남조선집권자는 생뚱같이 그 무슨 《〈방송의 날〉축하연》이라는것을 열고 《축사》를 한다 어쩐다 하며 돌아쳤다. 그의 이런 처사에서 사람들은 민주의 피바다우에서 향연을 베풀던 과거 《유신》독재의 망령을 다시 보았다. 이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괴뢰당국자들이 유가족들과 각계의 요구를 반영한 《〈세월〉호특별법》제정에 그 어떤 관심도 두지 않고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남조선집권세력이 《세월》호희생자유가족들과 각계의 요구를 그렇듯 한사코 받아들이지 않는 리유는 《특별법》제정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로 이어질 경우 《정권》위기가 심화될수 있다고 타산하고있기때문이다. 결국 괴뢰패당은 저들의 부패무능과 반역적처사로 애어린 자식들을 졸지에 잃은 부모들의 피눈물나는 고통보다도 《정권》안보에 더 치중하면서 죄악에 죄악을 덧쌓고있다. 이런 패륜패덕의 무리에게 그 무엇을 기대할수 있단 말인가.

남조선인민들이 괴뢰당국의 망동에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대중적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이어가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현실은 보수집권세력의 반인민적악정을 끝장내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며 참된 삶의 길을 열어나가는 방도는 오직 굴함없는 투쟁뿐이라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은정철

로씨야 테로와의 투쟁에서 이중기준을 배격

로씨야외무상 쎄르게이 라브로브가 2일 테로와의 투쟁에서 이중기준을 반대하는 자기 나라의 립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테로분자들을 좋고나쁜 부류로 가르지 말아야 하며 테로와의 싸움에서 절대로 이중기준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리비아사태가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극단주의자들을 비호하고 그들의 테로행위를 정당화하는것과 같은 이중기준으로는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싸이버범죄

최근 한 국제조사기관이 밝힌데 의하면 싸이버범죄에 의한 년간손실액은 약 6 000억US$에 달하고있다 한다.

극단주의와의 투쟁을 호소

챠드대통령 이드리스 데비 이뜨노가 최근 대륙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아프리카동맹 수뇌자회의에서 연설하면서 극단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대륙의 일부 불순무장세력들이 순진한 청년들을 테로와 공포를 조장시키는데 리용하고있다고 하면서 아프리카나라들은 이러한 극단주의그루빠들을 시초에 짓뭉개버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대륙나라들이 극단주의사상이 류포되는것을 막고 국경지역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것을 호소하였다.

경제침체와 실업자 증대, 범죄 성행

—그리스기업체들이 경제위기의 후과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있다.

3일 이 나라의 한 경제단체는 조사자료를 발표하여 현재 전국의 중소기업체 5개중 1개가 파산직전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통계국은 8월 26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7월에 전국적인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3%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일본의 주요소매업체들에서 판매량이 2.1% 감소되였다.

—미국에서 8월 23일까지의 지난 1주일동안에 새로 등록된 실업자수가 29만 8 000명에 달하였다.

8월 28일 미로동성이 이에 대해 밝혔다.

—미국의 뉴욕시에서 총기류범죄가 성행하여 사회적으로 커다란 불안과 공포를 자아내고있다.

최근 이 나라 신문 《뉴욕 타임스》는 8월 30일과 31일에 시의 3개 행정구역에서 적어도 10건의 총기류범죄가 감행되였다고 전하였다.

또한 미국 뉴욕주에 있는 허드슨강에서 최근 정체불명의 범죄자가 쏜 총에 맞아 살해된 한 남성의 시체가 발견되여 사회적공포를 조성하였다.

한편 4일 영국 런던의 북부지역에 있는 한 살림집에서 82살난 늙은이가 목이 잘린채로 발견되였다.

꾸바의 해안가

미국의 량면주의정책 비난

이란국가복리리사회 위원장 아크바르 하쉐미 라프산쟈니가 1일 한 외교석상에서 미국의 량면주의정책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이 저들의 불순한 기도를 실현해보려고 이란에 대해 강박과 회유정책을 실시하고있다고 까밝히고 그것이 앞으로 있을 핵관련협상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구차스러운 궤변, 반통일적흉심

죄지은자 변명이 구차스러운 법이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참가를 위해 인천에 나가게 되여있던 우리 응원단의 앞길을 가로막은 죄악으로 하여 안팎으로 얻어맞는 동네북신세가 된 괴뢰들이 지금 그 격으로 놀아대고있다.

얼마전 우리 올림픽위원회가 남조선당국의 방해책동에 의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응원단을 파견하지 않는다는데 대해 밝히자 《유감》이니, 《외곡주장》이니 뭐니 하고 발뺌을 하던 괴뢰들이 그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계속 유치한 오그랑수에 매달리고있다. 지난 2일 괴뢰당국은 우리 응원단에 대한 《환영립장을 유지》한다고 하면서 응원단파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속에도 없는 소리를 잔뜩 늘어놓았다. 4일에도 괴뢰통일부 당국자는 《환영한다는 립장》에 《변함이 없다.》느니, 《화해, 협력에 이바지하는 긍정적효과》니 하고 너스레를 떨었다. 우리 응원단파견을 고의적으로 망쳐놓은 괴뢰당국자들이 이제 와서 바빠맞은 나머지 그와 관련하여 하루가 멀다하게 계속 말장난을 하며 부산을 피우고있는것은 그들의 시꺼먼 속을 빤히 들여다볼수 있게 한다. 저들은 우리 응원단파견에 무척 관심이 있는데 우리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다는 불순한 여론을 조성하려는것이다. 괴뢰패당이 아무리 요사를 떨어도 우리 응원단이 인천으로 나갈수 없게 한 저들의 비렬한 처사의 내막을 가리울수도 없고 정당화할수도 없다.

우리 응원단이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수 없게 된것과 관련하여 지금 남조선에서는 다 마련되였던 잔치상이 당국의 온당치 못한 처신때문에 깨지게 되였다는 불만과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 경기대회가 진행되는 인천시의 각계는 물론 남조선정치권에서도 반발기운이 나타나고있다. 새정치민주련합은 응원단문제와 관련한 당국의 부당한 태도는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개최와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것으로서 청와대가 운운하는 《통일대박》론에 대한 회의심만 자아낸다고 비난했다. 지어 《새누리당》내에서도 응원단이 올것이라는 기대가 허물어졌다고 개탄하면서 불만을 터치는 일들이 벌어지고있다. 지금 남조선언론들은 우리 응원단파견이 파탄된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국제관례》를 구실로 북의 자존심을 건드린것은 남조선당국이라고 평하고있다. 그리고 북을 탓하기에 앞서 당국은 무엇을 했는가고 따져묻고있다.

한 언론은 우리를 걸고드는 보수당국의 처사를 이렇게 비난하였다.

《우리는 이미 여러차례 북응원단을 경험했다. 민중은 그들에게서 뜨거운 동포애를 느꼈다. 응원단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통일대박〉을 웨치는것은 어리석은짓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괴뢰당국이 이제 와서 아닌보살을 하면서 《환영립장》이니 뭐니 하는것은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를 또다시 망쳐놓은 저들의 추악한 반통일적죄악을 가리우고 민심의 분노를 피해보려는 구차한 궤변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우리 응원단파견이 성사되였더라면 그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의 열풍을 다시한번 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수 있었다. 현실적으로 남조선언론들은 《남을 뜨겁게 달구었던 북응원단》, 《남북관계개선에 한몫한 응원단》, 《미녀응원단의 덕을 톡톡히 본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등으로 지난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와 2003년 대구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당시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우리 응원단의 인천아시아경기대회참가를 고대하는 각계의 민심에 대해 널리 보도하였다.

남조선의 괴뢰보수패당은 바로 이에 위구를 느꼈다. 그들은 우리 응원단의 경기대회참가로 6.15의 열풍이 다시 휘몰아치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았다. 그렇기때문에 《대남정치공작대》니, 《남남갈등조장》이니, 《미인계》니 하는 허튼수작을 늘어놓으면서 우리 응원단의 앞길에 음으로양으로 장애물을 가로질렀다.

괴뢰당국이 겉으로는 우리 응원단의 경기대회참가를 《환영》하는듯이 냄새를 피우면서 실지로는 그것을 얼마나 악의에 차서 반대했는가 하는것은 남조선의 한 방송보도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그에 의하면 괴뢰국방부는 최근 우리 응원단의 인천아시아경기대회참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정신교육》을 전체 사병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괴뢰군부는 《정신교육》자료에서 북의 응원단파견은 《국론분렬을 획책하기 위한 화전량면전술》, 《대남심리전의 일환》이라고 악의에 차서 헐뜯었는가 하면 북응원단은 화해협력의 사절이 아니라 《미인계를 앞세운 대남선전의 선봉대》라고 터무니없이 걸고들었다.

이에 대해 전하면서 방송은 《국방부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북응원단을 로골적으로 비판하였다. 현 〈정권〉의 이런 이중적인 자세를 놓고 남북관계개선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잇달으고있다.》고 보도하였다.

우리 응원단을 《환영》한다고 한 괴뢰통일부 당국자자체도 며칠전 응원단파견을 위한 실무회담을 《먼저 요구할 계획이 없다.》느니, 《부정적인 영향이 완전히 없을것이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느니 하는 고약한 수작을 늘어놓았다.

현실이 이러할진대 괴뢰패당이 아무리 노죽을 부리여도 우리 응원단의 인천아시아경기대회참가를 가로막은 반통일적범죄의 책임에서 과연 벗어날수 있겠는가. 지금 남조선 각계는 괴뢰당국은 《북응원단참가를 고의로 파탄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한목소리로 단죄하고있다.

우리 응원단파견을 한사코 가로막으면서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를 사사건건 망쳐놓는 괴뢰보수패당의 반민족적죄악은 그 무엇으로써도 감출수 없다.

본사기자 리효진

ㄱ-41141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